서울大同窓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2년 8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93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李世震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커버스토리 6~7면〉

관악춘추

"서울대 미래는 서울대가 결정"

히딩크 감독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면서 「히딩크」식 경영기법이 화두로 오르고 있다. 주목할 것은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히딩크는 축구기술만 아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축구 전체를 아우르는 탁월한 매니저」란 말이다.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신임 鄭雲燦총장 취임에 즈음해 「히딩크」를 회상해본 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기적을 가져다줄 만큼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 때문이다.

신임 총장은 일찍이 서울대 개혁의 좌표를 「지성의 권위회복이며 서울대인의 추락하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다. 학계에서는 진보적, 개혁적 지식인으로 통하며 몇 차례 고위 공직 하마평에도 정년까지 학교에 전념하겠다고 해 참신한 면모와 곧은 소신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모은 인물이다.

지금 서울대는 국내외로 추락하는 위상 때문에 새로운 변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변혁의 시기에 서둘러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다. 학문의 국제적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 과학논문 인용색인 지수가 계속 상향 추세라고 하지만 40위라는 성적은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국가발전의 거점대학으로서 또 국가와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식창출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실력을 지속적으로 쌓아야 한다. 새로운 세기와 글로벌 시대는 모두에게 변혁을 요구한다. 일본은 10년 넘는 장기침체 원인 중 하나로 글로벌화에 적합한 인재대책의 실패를 들었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조건은 글로벌 인재양성이고 이들이 기초를 쌓는 곳이 바로 서울대 같은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는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제일의 대학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우수 대학의 반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의 발전은 곧 우리 나라의 선진화와 직결돼 있다고 본다.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있고 또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서울대인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인간상을 배출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의 미래는 서울대가 결정해야 한다」는 신임 총장의 말대로 서울대는 새 총장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에 의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모든 서울대인들은 기대하며 희망을 갖는다. 〈斗〉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青林, 李炯均, 南仲九, 金鎭銅, 金好俊, 宋鎭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느티나무광장

헌법개정과 정계개편

金哲洙
모교 법대 명예교수

정권말기가 되면 의례 헌법개정론이 등장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헌법개정론이 등장하고 있다. 명분은 제왕적대통령제의 극복이다. 처방은 논자에 따라 다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일부에서는 프랑스식대통령제, 분권적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제왕적대통령제를 결과하며 권력형 부정부패, 친인척비리, 레임덕현상의 온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헌법만 개정하면 이런 부조리가 말끔히 씻겨질 것인가 의문이다. 헌법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 여론형성을 위한 개헌논의 자체를 금기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헌을 주장하기 전에 헌법을 준수하여 제왕적대통령제의 병폐를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이지 현재의 독재적 운영은 헌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운영주체의 잘못이라고 하겠다.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정신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요, 정 필요하다면 법률과 관행만 그치면 제왕적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제는 미국식대통령제보다는 프랑스식대통령제에 가깝다. 미국헌법은 국회와 정부간에 엄격한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지지자가 국회에서 소수일 때에는 행정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분립시키지 아니하고 내각을 두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식이원정부제와 비슷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는 경우 국회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경우 동거정부를 운영하면 된다.

이제까지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 등을 무시해 독단적인 임면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과 국무위원해임건의권을 무시하여 독자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면했고, 국무회의를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운영한 관례 때문에 제왕적대통령제로 비난받았던 것이다.

정치권에서 위헌적 관행을 고치면 될 것을 기본법인 헌법개정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으로 보인다. 8·8 보궐선거 후, 정치정세는 예측하기 힘들다. 현재의 대선 후보들이 계속 12월까지 갈 것인지, 제3후보가 등장할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대선에 불리한 세력이 헌법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개헌을 단행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다. 그러나 개헌은 헌법절차에 따라야 하며 정당간의 합의가 없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추진을 위한 정당을 결성해 대선에 임하고 대선 후에 그 공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정계개편이 필요하더라도 합헌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정계개편이 단행되어야 한다. 대선을 앞둔 현재 헌법개정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헌법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본보 논설위원〉

월드컵이 남긴 것

安國正
SBS 편성본부장

옷에 쏙물 베이듯 진하게 남아 있는 2002년 6월 월드컵의 감동을 안고 사람들은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5천만이 하나된 「붉은 물결」의 감동을 지켜본 필자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다. 지난 1983년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기획, 방송하여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恨」과 「눈물」의 거대한 실체를 절감한 적이 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역동성」의 거대한 실체를 5천만 국민과 함께 경험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번 월드컵이 남긴 성과는 여러 가지이다. 전세계적으로 무려 연인원 4백20억 정도가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월드컵 중계를 통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역동성과 자발성이 바탕이 되는 이른바 「Dynamic Korea」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홍보효과 약 7조7천억을 포함해 무려 26조원 정도의 막대한 연관 경제효과를 거둔 막강한 브랜드인 「코리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히딩크식 리더십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성과를 목격하고 이를 통해 사회 여러 곳에서 우리의식을 지배해온 지연, 혈연, 학연에 따른 「끼리끼리」의 폐단을 떨치겠다는 의식의 각성이 그것이며, 마지막으로 애국가와 아리랑을 록 리듬으로 부르고 태극기를 패션으로 활용하는 창의와 자긍심을 지닌 이른바 W(또는 R)세대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월드컵에서 일궈낸 최대의 성과가 아닐까 한다.

부패, 무질서 그리고 혼돈의 이미지로 우리 스스로를 자조하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알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이런 W세대의 가능성은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자발성이라는 건강한 효소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대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를 고민해보자.

서울대는 일개 대학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계,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 일개 대학 이상이다. 우리 나라 CEO의 40%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통계만 보아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어디 경제계뿐인가. 관료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권 등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러하다. 하지만 이럴수록 「안티 서울대」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음을 잘 알아야 한다.

최근 모교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한 대학원생의 「과외비 담합론」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글들이 쇄도하는 광경을 보고 과연 서울대가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자리잡기 위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라는 브랜드가 우리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동문들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월드컵은 끝났지만 월드컵이 남긴 의미에 대해 가장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서울대학교일 것이다. 세상은 거대한 흐름 속에 변하고 있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건설산업에 「히딩크식 개혁」 적용해야

金鍾勳
(73년 工大卒)
한미파슨스(주) 대표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국제질서는 정부의 보호육성정책 하에서 안주해온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의 혁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정착시키고, 성장과정에서 전도된 가치규범들을 바로 세우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건설업계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하다. 자기 이익을 위한 이해단체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더욱 고착화 돼가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생산 프로세스 전체가 새로운 틀로 재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분적인 제도개선이나 일시적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기존의 관행과 테두리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기득권층의 반발, 각종 진입장벽, 업역 이기주의, 정부관련 부처간의 이해관계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 상황에서 결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월드컵에서 한국축구를 세계 4강의 반열에 올려놓은 히딩크 감독의 개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슬럼프에 빠져 있던 한국축구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관·산·학·연이 합심하여 세부 실천과제들을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건설산업 개혁 및 비용 혁신 프로그램인 「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둘째는 스타와 무명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연고, 세간의 평가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만을 선발 및 기용의 잣대로 삼아 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요행이나 입찰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현행 건설입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소요품질과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저렴한 공사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을 평가 잣대로 삼아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셋째는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우리 나라 축구팀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도입해 한국축구의 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켰다는 점이다. 우리 건설산업은 국제경쟁에서 도태되어 아직껏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등 후발국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과 제도 하에서 기술력이나 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 능력 개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는 축구의 기본에 충실하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본은 엔지니어링 능력, 품질,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 능력 등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다섯째는 탁월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에 의한 팀워크의 향상이다. 건설사업에는 각 단계마다 수많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 관리 능력의 부재로 인해 적기에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공기지연이나 원가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곧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히딩크식 리더십과 개혁 프로그램은 우리 건설산업에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다. 먼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타개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로매진해야 한다. 또한, 건설생산구조를 혁신하고, 생산주체와 수요자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함으로써 국제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건강을 지킵시다

자연을 따르는 한의학의 신비

梁濟炯(80년 社會大卒)
거여경희한의원장

한의학 교과서 중의 하나인 「황제내경」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비결로, 계절에 따른 변화에 잘 적응하고, 몸에 해로운 6가지 기운(風·寒·暑·濕·燥·火)을 피하여 자연의 이치에 잘 따르며 음식을 섭취함에 절도가 있도록 하고, 지나친 감정의 치우침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21세기 현란한 기계문명 속에서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자연의 파괴와 인간의 건강위협이라는 문제가 숨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름철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우리 몸에 해로운 모기향을 피울 것이 아니라 모기장을 치고 수면을 취함으로써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만 하면 될 것이다(3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그리했다).

실내의 벽이 습해 곰팡이가 필 때, 곰팡이를 죽이는 약품을 쓸 것이 아니라 환기를 잘 시켜 습기를 제거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바람은 습한 기운을 이기고(風勝濕) 나무가 흙을 이긴다(木克土)는 동양의 음양오행이론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기의 경우를 살펴보자.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찬바람의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치유 반응(이를테면 전쟁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해열제 등으로 열을 내리면 오히려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때는 오히려 따뜻한 한약재를 사용해 몸을 풀어주는 것이 자연을 어기지 않으며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지상은 뜨겁지만 땅속은 시원하며, 겨울에는 그 반대이듯이 우리 인체도 여름에는 위장계통이 냉해진다. 그래서 여름에는 열을 내는 삼계탕을 먹고, 겨울에는 차가운 냉면을 먹는 것이 한의학적 사고에 부합되는 건강관리법이다. 이런 이치에 따라 여름철 냉방병에는 속을 덥게 하는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로 치료하면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립대학교에 한의학과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국립 서울대학교에 한의학과가 생기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연락처 : 406-3375)

추억의 窓

피아노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등교
오돌오돌 떨던 졸업연주회 기억 아련

金喜子(59년 音大卒)안나 피아노뮤직 스튜디오 대표

우리가 다니던 옛 음대자리는 당시 동숭동 문리대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었지만 2학년 때부터는 의과대학 캠퍼스 위에 함춘원이라는 곳에 신축건물을 지어 수업을 받았다. 새 건물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지어졌지만 전보다 많은 연습실과 콘서트홀까지 확보돼 있어 학생들은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당시 전체 음대 입학생 60여 명 가운데 피아노 전공자는 20명 가량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새롭게 단장한 신축건물의 전공실기 연습실에 있던 피아노가 문제였다. 그 피아노들은 겉으로는 번듯했으나 속의 부품이 얼마나 낡았든지 고장이 잦아 조율사 한 분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 사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피아노를 전공하면서도 집에 개인악기를 갖지 못해 학교 피아노에 의존해 연습하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피아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요즘의 환경에 비하면 모든 면이 많이 열악했지만, 굳이 돈이 되는 공부를 제쳐두고 음악을 선택했던 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그만큼 강렬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전공 실기시간에는 당시 우리 나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여섯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중 세 교수님으로부터 열성 어린 지도를 받을 수 있었기에 나로서는 만족스러웠고 큰 행운이기도 했다. 레퍼토리가 준비되면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월례 음악회라는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교내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대생들도 눈에 띄었던 기억이 난다. 가끔 연습부족으로 인해 전공 실기레슨을 잘 받지 못했을 때는 선배언니들이 혜화동 로터리쪽에 있던 태극당 제과점에 데려가 빵을 사주며 위로하던 일, 가끔 음악회에 가거나 인사동에 있던 르네상스 음악감상실에서 루빈스타인이 연주하던 베토벤이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악보를 펴놓고 듣던 일 등은 모두 일상적인 학교수업 외에 보낸 학창생활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가끔 오전에 교수님이 휴강을 할 때면 종로5가에 있던 평화극장에 영화 보러가는 재미도 있었는데, 「랩소디」 「에덴의 동쪽」 등은 배경음악이 아름다웠던 것 같다. 연례행사로는 명동 시공관(그후 국립극장이 되었다가 지금은 모 증권회사 간판이 걸려 있다)에서 개최되던 송년 대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땐 전교생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음악회였다. 특히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 「합창」의 장대하고 감격적인 대연주회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 있다.

역시 음대 시절 거쳤던 가장 큰 유종의 미는 졸업연주 때다. 2월에 열렸던 졸업연주는 문리대 강당에서 며칠씩 계속됐으며, 대외적인 공개연주라 국내 음악계 인사들과 타 대학생 등 많은 청중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연주를 해 감격스러운 순간을 맛보았다. 반면, 난로 하나 없는 추운 겨울에 무대 뒤에서 얇은 연주복을 입고 추위와 긴장으로 오돌오돌 떨면서 연주시간을 기다리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추위가 느껴진다.

앞줄 우로부터 두 번째 필자.

「관악언론인회」 발기인 모임

창립 주비위원 10명 위촉

林회장 "언론문화 창달·모교발전 지원에 힘써주길"

본회, 모교 체육부 1천만원 지원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7월 15일 조선호텔 호경전 쟈스민룸에서 동창회보 논설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언론인회(가칭)」 창립 발기인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林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사대동창회 辛東一회장, 朴英俊감사,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동창회보 林炯斗·李炯均·南仲九·金鎭銅·安炳璨·金好俊·丘月煥·安國正·金鍾勳·金仁圭·徐玉植·朴聖姬논설위원이 참석했으며, 모교 鄭正佶대학원장, 朴吾銖기획실장, 全泰源체육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林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才才多士한 동문 언론인의 자율적·자발적 결속을 통해 우리 나라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동창회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관악언론인회」 창립을 추진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명실상부한 동문언론인의 친목과 정보교류 나아가 모교발전을 지원하는 단체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 등의 체육지원 기금으로 全泰源체육부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 본회는 지난 99년부터 매년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모교 체육부를 지원해왔다.

李世震사무총장의 「관악언론인회」 정관 및 「서울대 언론인 대상」 규정(안)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은 창립 주비위원을 선정해 제반 사항을 위임토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 관언회 창립 주비위원으로 孫一根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李炯均(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南仲九(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金鎭銅(서울경제신문 주필)·安炳璨(경원대 행정대학원장)·安國正(SBS 편성본부장)·金仁圭(KBS 뉴미디어본부장)·徐玉植(前연합뉴스 기사심의실 고문)·朴聖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논설위원 등 10명을 위촉했다.

한편 모교 朴吾銖기획실장이 관악캠퍼스 앞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세계 유수의 어느 대학도 캠퍼스 정문앞에 IC가 설치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고가도로와 IC 설치를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또 이번 서울시의 계획이 재검토되거나 철회되도록 동문은 물론 교수와 학생,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林회장·全泰源체육부장

「관악언론인회」 창립 준비모임

주비위원장에 南仲九위원 선출

정관·「언론인 대상」 규정 축조심의

본회는 지난 7월 24일 한국언론재단 석류실에서 孫一根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한 李炯均·南仲九·金鎭銅·安炳璨·安國正·金仁圭·徐玉植·朴聖姬논설위원, 한국언론재단 朴紀正이사장, 세계일보 曺炳喆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언론인회 창립 주비위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비위원장에 南仲九(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논설위원(사진)을 선출했으며, 간사위원으로 曺炳喆(77년 社會大卒·세계일보 심의위원)동문, 李昌玹(86년 農大卒·국민대 교수)동문을 선임했다.

이어 「관악언론인회」 명칭을 그대로 확정하고, 정관 축조 심의를 통해 회원 친목과 언론문화의 창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영역을 회원친목과 복지후생, 언론관계 연구,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모교와 동창회 발전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南仲九 주비위원장

회원의 자격은 서울대총동창회 회원으로서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사 등의 전·현직 언론인, 언론기관의 경영인·언론관계 학자 및 언론단체 간부로 규정했다.

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간사장 1인, 이사 15인 내외, 감사 2인을 두고,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은 회장, 부회장, 간사장,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회장이 위촉키로 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은 매년 2월 총회에서 열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키로 결정했다.

한편 주비위원 제2차회의를 8월 31일에 갖기로 하고, 관언회 창립총회를 10월 15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7월 운영위원회 겸 편집회의

「서울대 인명록」 CD롬 시연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7월 10일 한국언론재단 국화실에서 동창회 운영위원회 겸 동창회보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林회장의 인사말, 金在淳명예회장의 건배사에 이어 李世震사무총장의 동창회 회무보고가 있었으며, 20일 초판이 발간될 「서울대 인명록」의 CD-ROM TITLE 시연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6월 특지장학금을 출연한 故 金榮經동문, 관악회 明泰鉉이사와 기금장학금을 출연한 故 咸仁英동문과 張翼龍·金讚煜·孔大植·朴德七·崔相弘·禹仁性동문에게 林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金在淳명예회장, 林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韓斗鎭·孔大植·安秉勳부회장,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明泰鉉이사, 朴英俊감사, 李世震사무총장, 재미동창회 李龍洛회장, 한일기술연구소 崔相弘회장, 뉴잉글랜드지부 姜慶植 前회장, 기계동문회 禹仁性회장, 부천지부동창회 金聖又회장, 재미동창회 權相禧 前편집인, EPHPM 동창회 金方喆회장이 참석했으며, 동창회보 金哲洙·朴世熙·林炯斗·李炯均·朴明珍·金仁圭·朴聖姬논설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明泰鉉이사·林회장

禹仁性동문·林회장

간호대 동창회 楊銀淑명예회장 특지장학금 2천만원 추가 출연

간호대 동창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명예회장이 지난 7월 19일 본회에 특지장학금 2천만원을 추가로 보내와 총 1억원(2구좌)의 특지장학금을 출연했다.

楊동문은 지난 1999년 2월에 5천만원, 올해 3월에 3천만원을 출연해 현재까지 모교 간호대 재학생 5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온 바 있다. 〈燮〉

미술작품 **白顯鈺 作**

「둥지」, Polyester, 60×50×120㎝, 1981.

〈작가약력〉

▲65년 모교 미대 조소과 졸업
▲65~99년 낙우회 출품
▲75~99년 서울 조각회 출품
▲81~97년 현대미술관 초대 출품, 인천시전 초대 출품
▲82~97년 서울 미술대전 초대 출품
▲84~88, 94, 9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90~99년 인천시 건축위원
▲96~97년 춘천MBC 미술대전 운영위원
▲96~98년 인천시 남구 환경미술 심의위원
▲98년 동아미술대전 심사위원
▲현재 인하대 교수

Noblesse Oblige 은곡공고 李鍾郁교장

국내 첫 직업훈련소·극기수련원 설립

"없는 사람들의 恨을 풀어 주고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은 유난히 생활 복지기관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노인복지회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여성발전센터, 청소년보호시설, 직업학교 등이 몇백 미터 간격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곳은 각각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 나이 들어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사람들, 사춘기 시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뛰어 다니는 사람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중한 안식처이다. 여기 하나 더, 중계동의 명물을 꼽으라면 바로 은곡공업고등학교를 들 수 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관들처럼 있는 자가 아닌 없는 자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은곡공고 설립자이며, 현재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李鍾郁(68년 師大卒)동문. 그는 재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5백여 명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사립공고로서 87%에 육박하는 대학진학율을 보이며 누구보다 인정받는 교장선생님으로 통한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집 한 채, 차 한대 없이 맨몸과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평생을 보낸 「없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다.

강원도 농가에서 태어난 李동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때부터 고학을 해야만 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李동문은 자신처럼 아무 것도 없는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학교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조금만 여유 돈이 생기면 길거리로 뛰쳐나가 즉석에서 아이들을 불러모아 과외를 하기도 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李동문은 창고 하나를 얻어 야학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는 다시 한번 훗날 자신의 손으로 학교를 세우리라 다짐했다.

모교 물리교육과에 입학한 李동문은 그러나 당시 학비를 제때 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었다. 그래서 잠시 학업을 접고 선택한 것이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체신대학이었다. 졸업 후 李동문은 낮에는 모교에서 못 다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야간근무를 뛰며 드디어 사범대학 졸업장을 따게 됐다.

체신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틈틈이 라디오, TV, 전파통신 관련 학원에 출강한 李동문은 이곳에서 쌓은 경력과 친구의 도움으로 1967년 우리 나라 최초의 전파통신학원인 「극동전파학원」을 세우게 된다. 넘쳐나는 수강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李동문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완전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나라 최초의 직업훈련소인 「한국원양직업훈련소」를 설립했다.

1972년에 만든 원양직업훈련소는 당시 원양어업에 필요한 전파통신사 및 선원들을 배출하는 곳이었다. 모든 것이 무료였기 때문에 모자라는 자금은 원양어업협회의 지원금과 학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했다. 이후 중동지역에 우리 나라의 건설 붐이 일면서 건설기능공을 함께 양성하기도 했다. 물론 이때도 갈 곳 없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학원 운영 외에도 李동문은 경기도 포천군 산정리에 위치한 땅을 사들여 우리 나라 최초로 정부인가를 받은 수련원을 지었다. 이름하여 山井湖水 유스타운(Youth-town). 가난한 팔자(?)를 타고난 아이들에게는 남모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성을 다듬고, 극기 수련을 통해 삶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교사들과 기획하면서 이곳 산정호수에 수련원을 세우게 된 것이다. 캠프화이어, 과학캠프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2백50계단 오르기, 종합장애물 넘기, 그물타기, 세줄타기, 파도타기를 하는 극기수련장이 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련원을 찾아와 수입도 꽤 있었죠. 물론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 학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거의 손님이 없어요. 알고 보니 특급호텔이다, 유명콘도다, 해외여행이다 하며 편한데만 가더라고요. 마음을 단련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곡공고는 한국원양직업훈련소, 한국원양공업전수학교, 은곡공업고등기술학교를 거쳐 1993년 정규학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학교 부지, 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금은 모두 李동문과 교사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 현재 전국 공업고교 교장회 회장을 맡고 있는 李동문은 우리 나라의 30%에 달하는 기능공을 배출하는 공업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능시험에 직업탐구계열을 추가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공과대학 정원의 3%를 공업고교 학생들로 채울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장학금 확충에 대한 사항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생들만이라도 학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장학사업에 무엇보다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제는 정년도 지나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남아 있는 여력이 없지만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하는 李동문은『사람들은 우리 학교 대학 진학률을 보고 왜 공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냐고 싫은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능공으로서,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야간대학을 다녀서라도 사회에서 뒤쳐지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고라고 하면 아주 수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만능 컴퓨터도, 어떤 지능적인 로봇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손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만이라도 단결하여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위치에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表〉

2002년 은곡공고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제23대 鄭雲燦총장 인터뷰

"자신에겐 엄격, 타인에겐 관대한 모습 보여야"

대담 : 본보 南仲九(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논설위원

무주택 교수 위해 총장공관 이주 사양
연구·교육·봉사의 秀越性은 기대 이하

지난 7월 20일 모교 제23대 총장에 임명된 鄭雲燦(70년 商大卒)박사를 본보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논설위원과 李世震(73년 法大卒)편집주간이 만나 대학운영의 역점사항, 당면과제와 해결책 등을 들어보았다.

—제23대 총장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서울대 동문들에게 한마디 인사말씀부터.

『선거기간 중에는 정신없이 운동만 하다가 당선되니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튼 미력하나마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약하신 대로 총장공관에 들어가지 않기로 하셨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비춰집니다마는 공관입주를 사양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선거 캠페인 중에 각 캠퍼스를 돌아다녔는데 비교적 여유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던 공대 교수들조차 무주택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총장공관 재개발이었습니다. 우선 총장공관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또 교수아파트를 다시 재개발하면 30평짜리 2백 가구 이상이 들어서리라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총장공관에서 각종 연회를 개최하고 해외 손님에게 숙식을 제공해왔는데, 건너편 호암생활관에 연회장과 게스트룸이 많이 생겨나 과거와 같은 공관의 연회장 및 객실 유용성은 줄어든 것 같아서 결심했습니다』

—현정권 출범직후 한국은행 총재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학자의 길을 가겠다』며 고사를 했고, 개각 때마다 금융감독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모두 거절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총장님은 개혁적 성향의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5명의 후보 가운데 최연소로 개혁적 성향을 지니신 선생님이 최다득표를 하신 것도 학교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는 「서울대 위기론」에 따른 「변화요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중 대학운영의 역점은 어디에 두실 생각이십니까. 기본구상을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우리 사회가 서울대에 요구하는 秀越性(excellence)은 과거보다 못하면서,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과거에 누리던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서울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연구, 교육, 봉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수월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연구측면에서 과거에는 외국에서 개발되거나 축적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또 그것이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가 크게 성장하여 활발한 지식창출이 필요하나 지식창출이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측면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연구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예전에는 테크니컬한 지식은 덜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인성교육은 많이 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테크니컬한 지식은 많이 가르치는데 지성인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막스 웨버(Max Weber)가 얘기한 「비지성적인 전문인」만 길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봉사면으로 보자면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전수한다는 점에서 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건전한 사회비판 기능을 하느냐는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제철학자 중에 빌헬름 뢰프케(Wilhelm Röpke)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휴머니즘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사회가 아무리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학자, 법관, 언론인만 확보하고 있으면 미래는 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자들이 나라가 어두울 때 좋은 건설적 비판을 함으로써 나라를 구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언뜻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또 서울대는 아주 심각한 불균형 속에 봉착해 있다는 것도 위기의 한 일면입니다. 큰 대학과 작은 대학, 잘 나가는 대학과 덜 잘 나가는 대학, 응용학문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 연건·수원캠퍼스와 관악캠퍼스간 등 여러 가지 의미의 불균형 상태 지속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 불만과 나름대로의 충돌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서울대가 화합도 하나 못하는 대학이구나」해서 과거보다 서울대를 덜 쳐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대학들도 좋아져서 사실 상대적인 위치에서는 과거에 서울대가 누리던 지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학교 밖의 사람들로부터 「서울대가 사회를 망친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교수님들이 이 과제를 젊은 사람이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표를 찍어준 것 같습니다』

—사회 일각에는 「反서울대」정서가 없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을 두고 「역시 우수하다」 「독불장군들이다」 「부려먹기 좋은 타입」이라는 비아냥도 없지 않습니다. 모교가, 모교출신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대가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인 면에서는 좋아졌는데, 다른 대학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에서는 과거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감싸서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3대 요소가 학생, 교수, 재정입니다. 우수한 학생과 실력 있는 교수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공부하고 연구하며, 거기에 충분한 재정이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일류대학이 안될 수 없지요. 총장님은 현행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재검토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캠퍼스에서는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 모집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과별 모집, 계열 모집도 했지요. 지금은 광역화 모집이라고 해서 대학단위, 학부단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소단위들이 원하는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보다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능을 잘 봐서 들어오고, 어떤 학생은 내신이 좋아서 들어오고, 또 어떤 학생은 수능과 내신이 골고루 좋아서 들어오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뽑았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4천명 정도의 신입생을 뽑을 경우, 수백명 정도는 전국의 시·군 등에 안배를 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뽑으면 이 학생들이 서로의 생활배경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학업에 열중하여 다양한 사고와 언행을 하는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대나 프린스턴대의 예를 들면 각 주에서 적어도 몇명은 들어오게 합니다.

—지난해 모교의 SCI 등재 논문 수 순위가 세계 40위에 오르

학내 민주적 의사소통체계 확립할 터
「교수 복지기금」 조성…생활개선이 우선

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행정지원 등 연구여건이 세계 유수대학에 비해 아직 열악한 상황입니다. 총장께서는 『교수 복지기금을 만들어 연구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하셨는데 앞으로 연구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교수 연구여건 개선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어야 연구가 되는 것이지, 생활이 어려워서야 연구가 되겠습니까? 헤겔(Hegel)도 얘기했지만 배고픈 사람은 학문을 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무주택 교수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등 생활개선을 해준다면 집 걱정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교수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를 보조해 준다면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려면 결국 돈입니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 세계일류대학이 되겠다면 헛구호일 뿐입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예산을 많이 따오되 대학의 자율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재정확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대학이기에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으로부터 유치해야 하겠죠. 우선 서울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월성을 보여주면 정부도 설득하고, 민간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없습니다만 제 자신이 원칙과 명예를 지키고, 또 서울대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1천억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관악캠퍼스 정문 앞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세계 유수대학 가운데 학교정문 앞에 고속도로를 만든다며 녹지를 없애고 터널, 고가도로, IC를 만든 사례가 또 있습니까?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IC는 몰라도 순환고속도로의 연장선상에서 고가도로를 만든답니다. 세계에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법무법인을 통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대의 집단이기주의로 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교외로부터의 이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 학생, 주민 그리고 다른 대학교수들이 도와주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때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학내분규 끝에 전임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일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동문들이 모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대 총장은 분열된 학내 분위기를 추스려 구성원들을 단합시켜야 하고, 일부 구성원들의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부터 먼저 원칙과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행동을 바로 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소위, 민주적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한다면 이전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대학의 규모가 공룡과 같이 너무 큽니다. 학생이 3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력에 1만명의 대학원생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마구 대학원생을 늘렸는데 너무 비대해져서 과거보다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곳은 굉장히 커지고, 어떤 곳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들 사이의 불균형으로부터 나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학의 규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립대학이 소수정예주의를 고집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같은 규모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내 분규인데, 이미 대학에 내재돼 있던 것을 학생들이 밖으로 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의사표출을 허용 또는 권장하여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하도록 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축적되어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이번 제19대 서울대 총동창회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신임 회장과 임원들은 모임 때마다 모교 돕는 문제를 화제로 삼습니다. 모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동창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동창회에서 정말 훌륭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신 것 같습니다. 동창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모임은 물론이려니와 이벤트를 가끔씩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 동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렉쳐도 하고, 동문 초청 공연이나 미술 전람회도 여는 등 소위 미국식 리유니온(Reunion)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 여름 또는 가을에 리유니온 행사를 개최하고 지속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현재 동창회에서 매년 10월 개교 기념식후 일요일에 홈커밍데이 겸 등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대학과 달리 주변을 의식해서 모임을 자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단결해서 당당하게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구조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법대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과거에는 고시에서 30명 내지 50명, 또는 1백명을 뽑을 때에 거의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고려대 전체로는 서울법대보다 많이 붙을 겁니다. 단지 서울대는 법대뿐만 아니라 사회대, 자연대, 공대까지 사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서울대 전체로서는 고려대와 비교가 안됩니다만. 이렇듯 1천명을 뽑을 때 서울대 출신이 다 합해서 3~4백명 정도이고, 나머지가 타교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법조계에서 권력구조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서울대 출신들이 명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단결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지만 내실이 있는 한 서울대 단결 모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20만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동창회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처럼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사는 것이기에 항상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약 력〉

△70년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졸업
△76년 美프린스턴대 경제학박사
△78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98년 한국금융학회장
△00년 금융발전심의위원장
△02년 서울대 사회대 학장

지부순례
필리핀 지부

단과대별 연계해 탄탄한 팀워크 과시

글 : 康祖翼(76년 獸醫大卒·Damoa Tech 대표)총무

태양의 나라 필리핀은 아시아 대륙 남동 해안에서 약 8백㎞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7천1백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육지 면적은 약 30만㎢이고, 남북으로 최장길이는 약 1천8백50㎞이며,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은 약 1천1백25㎞이다.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는 필리핀은 동쪽에 필리핀 해, 남쪽은 셀레베스 해, 남서쪽은 술루 해, 서쪽은 남중국 해와 접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막사이사이, 마르코스, 이멜다, 아키노 등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한국전 당시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었으며, 서울에서 비행기로 4시간의 짧은 거리에 있는 관광지로도 손꼽히는 나라이다. 최근 2~3년 사이에는 관광객보다 영어 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학원촌에 가보면 소규모의 「Korea Town」들이 형성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필리핀은 크게 루손섬, 민다나오섬 그리고 비사야 제도로 나뉘는데, 그 중 북쪽에 있는 루손섬이 가장 크며, 수도 마닐라도 루손섬의 가운데에 있는 마닐라만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12월 송년모임.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보라카이는 루손섬과 민다나오섬 중간에 있는 비사야 제도에 있다. 보라카이 이외에도 세부섬이 관광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민다나오는 필리핀의 남쪽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섬으로, 한국의 뉴스에서도 이슬람 반군 및 아부 사야프의 납치 사건으로 자주 등장했던 지역이다. 그렇다고 민다나오섬 전체가 반군의 영향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민다나오섬의 서쪽에 있는 잠보앙가 일대 등이 아직 반군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정도이다.

대체로 국민성이 낙천적이고 친화적이며, 처음 들르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다. 더욱이 국민 대부분이 기초적인 영어는 구사하므로 의사 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음식도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지부 동창회는 약 60명의 동문이 회원으로 있으며, 嚴翼虎(47년 文理大入·본명 嚴翼舜)·兪炳熙(62년 農大卒)고문과 함께 현재 李舜培(62년 法大卒)동문이 2001년부터 2년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창회 모임의 모태는 아시아개발은행(ADB·현재 모교 출신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문들을 위주로 80년 초반에 시작됐으며, 당시에는 전체 모임보다 단과대학별로 동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전체모임으로는 연말에 동문친선 골프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정도였다.

1998년 兪炳熙동문이 회장을 맡으면서 동문 전체를 위한 모임에 힘쓰게 됐고, 이후 각 분기별로 공대·농대·상대·기타(문리대·법대·사대 등) 단과대학이 돌아가면서 골프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李舜培 회장

단과대별로 친목 도모를 꾀한 결과 지금은 서로 더 많이 동창회에 기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3월에는 고려대 총동문회와 함께 골프대회를 개최해 단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서울대가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한다는 것을 필리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李회장은 동창회 발전에만 역점을 두지 않고, 필리핀 사회에도 크게 기여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례로 지역의 고아원 등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 또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동문들에게 힘과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일일이 경조사를 챙기고 있으며, 항상 웃음이 넘치는 동문 모임과 정기총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과순례
교육학과동창회

역사적 가치 담긴 「동문회 요람」 만들터

글 : 尹正一(66년 師大卒·모교 교수)회장

尹正一 회장

교육학과는 서울대학교 내에서 인재를 가장 많이 양성·배출한 우수한 학과 중의 하나이다. 서울대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1946년에 창설된 교육학과는 현재까지 교수 4백여 명, 교육감 5명, 대학총장 30여 명, 정부의 장·차관 11명, 총리 2명, 부총리 1명 등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다. 한 학과가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고급인력을 배출한 것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육학과의 동문이 된 것에 대해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동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학과 발전을 지원하며,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전개를 목적으로 1980년 12월 20일에 창립된 교육학과동창회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동문들의 주소를 정리하여 「동문회요람」을 매년 발간했으며, 37회에 걸쳐 「동문회소식」을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또 모교방문의 날 행사 및 등반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학과창설 50주년 기념행사도 성대하게 치렀다.

한편 1999년부터는 과거에 모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분야를 전공한 동문들과 모교 대학원 교육학과 동문들도 동창회 회원으로 통합시켰다. 이는 동창회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서울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매년 발간되는 「동문회요람」은 동창회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형태로 그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동문 모두의 근황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교육학과동창회는 오늘의 작은 기록이 훗날 높은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동문회요람」발간에 최대의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동문들의 이메일(e-mail)을 파악, 요람에 게재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학과동창회 홈페이지(http : //www.snuedal.org)와 더불어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매년 3회에 걸쳐 발간하는 「동문회 소식지」는 회원들 서로간의 근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시 해마다 치르는 「모교방문 및 어린이날 행사」는 동창회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매년 5월 5일에 있는 이 행사에는 3백여 명의 선후배 동문과 동문 가족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지난 5월 5일 2002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으로 2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동창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4백만원에 이른다. 이번 달에는 2002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학과발전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새해 첫 토요일에 갖는 「신년교례회」는 여러 은사님을 모신 가운데 2백50여 명이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원로 동문이 참석해주시어 신년 덕담을 들려준다.

교육학과동창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 및 사업을 통해 규모·조직·행사·장학·사회참여에서 모범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02년 5월 모교방문 및 어린이날 행사.

동문을 찾아서

신아세아질서연구회 李相禹회장

知的활동 통한 자유지성인의 광장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주관으로 제1차 한중토론회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에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본회 부회장)회장을 만나 연구회 활동을 들어보았다.

－연구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1993년 5월에 창립되어 이제 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뜻을 모은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가의 여러 인사들과 아시아 장래에 관해 서로 협의하는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둘째는 동북아시아의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젊은 학자들을 각 나라의 지역에 보내 그곳의 언어와 문화, 정치 등을 배워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계간지「新亞細亞」를 발간함으로써 아시아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의견이나 연구들을 다른 나라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정부의 보조가 없는 순수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죠. 현재 金在淳(본회 명예회장)고문을 비롯해 3백60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일반회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구회원은 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기간회원은 언론인, 정치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심있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제1차 한·중토론회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에서 먼저 회의를 제안해 와서 이뤄진 것입니다. 비공개로 치러진 이번 심포지엄은 정치·언론·기업·학계의 각 분야에서 총 24명이 참가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21세기의 아시아 미래에 대해 자유스러운 토론이 이뤄졌는데, 특히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동북아의 주된 긴장 요소가 이념 차이에서 온다는 인식들을 함께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2차 토론회를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가질 예정이며, 주제는 1차 회의와 같은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 연구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동북아시아의 젊은 학자들과 함께 아시아 공산주의의 장래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또 외국의 학자들을 초청해 우리 나라의 여러 분야에 관한 공동 연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들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李동문은 미국 하와이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제정치학회장,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연락처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사무국 547－7161〉

「여가와 문화학회」 全聖喆회장

문화예술인 위한 공론의 장터 마련

지난 7월 4일 여가와 문화학회가 창립됐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全聖喆(73년 文理大卒·세종대 교수)동문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창립 배경은.

『올해 초 여가와 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 교수 1백여 명이 모여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로 인해 여가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과 노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기로 전환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여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제도와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가와 문화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죠.

현재 중앙일보 李御寧고문, 동아일보 金學俊사장 등을 포함한 5백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모두 학술·전문인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일반회원제도를 신설해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침은.

『우리 학회의 특징은 홈페이지(www.Lculture.net)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이슈 포럼과 공연 기획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교환될 수 있는 포럼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는 8월 24일에는 온라인 성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문화의 정체성 확립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껏 우리 민족이 어떤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여가와 문화학회는 문화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 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류 문화, 새로운 결혼 문화, 싱글들의 문화, 일본 문화, 성인영화관 등등 많은 이슈들을 다룰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1세기는 문화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든다해도 좋은 디자인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디자인이란 문화와 연관되어 있지요. 따라서 문화가 산업을 키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여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여가와 문화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가와 문화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 예술인을 포함한 전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터(market place)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全동문은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재미변호사, 무역위원회 위원장, 세종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亨〉

단과대 동창회장 인터뷰

공과대학 동창회 成百詮회장

"「꿈나무 장학금」으로 이공계 기피 해소"

지난 5월 19일 공과대학 동창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된 成百詮(56년 工大卒·한국해외기술공사 회장)동문을 만나 향후 동창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장학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최근 들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모교 공과대학과 함께 「꿈나무 장학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공대 교수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출연해 매년 신입생 1백명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2년 동안 펼칠 사업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만 모교가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존의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鄭哲圭동문이 출연하여 내년 건립 예정인 「신양학술정보회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기술인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소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소홀히 해서는 나라의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인력 없이는 결코 지금의 경제개발을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기술공사는 어떤 회사인지.

『1백5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국내외 건설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토목공학과 동창회장을 역임한 바 있지만 공대동창회는 다른 대학동창회와 달리 10여 개의 학과 동창회가 별도로 결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질적인 학과 동창회를 중화하고, 더욱 친목을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동창회도 활성화된 단과대 동창회가 별도로 있어서 이점에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동창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공대동창회도 기여를 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총동창회가 내건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염두에 두고 모교인 서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창회에서 발행하는 회보나 잡지 등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읽고 의견을 내는 등 아주 적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63년 고등고시에 합격, 건설부 수자원국장·인천항건설사무소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해외건설 사장,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일 터널 기술연구회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가족으로 부인 金安順(58년 工大卒)여사와 장남 成廣濟(85년 工大卒)동문, 며느리 張洲寧(89년 美大卒)동문이 있다.

〈燮〉

7월 개각에 동문 6명 등용

지난 7월 11일 金大中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金正吉(65년 司大院卒)동문을 임명하는 등 장관(급)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 개각에서 국방부 장관에 李俊(68년 文理大卒)前국방부 국방개혁위원장, 정보통신부 장관에 李相哲(71년 工大卒)KT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金成豪(71년 商大卒)조달청장, 해양수산부 장관에 金昊植(71년 工大卒·73년 商大卒)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에 金振杓(71년 法大卒)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기용했다.

한편 차관급인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崔鍾璨(72년 商大卒)前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崔수석은 본회 林光洙회장의 맏사위이다.

또 19일 조달청장에 權五奎(75년 商大卒)재정경제부 차관보, 총리 비서실장에 鄭剛正(87년 行大院卒)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소청심사위원장에 金重養(69년 法大卒)행자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을 각각 발탁했다.

더불어 21일 농림부 차관에 安鍾云(73년 農大卒)농림부 차관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 玄定澤(71년 商大卒)여성부 차관을 임명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에 동문 14명 선임

국회는 지난 7월 11일 상임위원장 및 특위위원장단을 선출, 16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에 咸錫宰(63년 法大卒)의원, 정무위원장에 李康斗(73년 行大院卒)의원,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徐廷和(55년 法大卒·本會副會長)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 朴宗雨(62년 法大卒)의원, 교육위원장에 尹榮卓(60년 文理大卒)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 金炯旿(71년 文理大卒)의원, 문화관광위원장에 裵基善(25기 AIP)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李良熙(66년 法大卒)의원, 산업자원위원장에 朴尙奎(31기 AMP)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朴鍾雄(75년 法大卒)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 申榮國(31기 ACAD)의원, 여성특별위원장에 林鎭出(35기 AMP)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洪在馨(60년 商大卒)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李在善(51기 ACAD)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화제의 동문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朴智善소장

서화류 문화재 보존 1인자

"옛 문헌 찾아 전통기법 되살릴 터"

문화재를 그 모습과 가치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 모두의 몫이다. 하지만 이 소중한 문화재들을 그 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존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하려 노력하는 朴智善(83년 美大卒)동문을 소개한다.

모교 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朴동문은 현재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겸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내 서화류 문화재 보존에 1인자로서 학생들에게 보존 과학에 관해 강의하면서 낡고 가치가 떨어져 가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화를 전공한 그가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4학년 때 논문을 쓰려고 중국에 다녀오면서부터이다. 이 여행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문화재 보존 과학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그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일본의 그것과 제대로 분리가 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일본의 문화재 보존 과학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느껴 1986년 일본에 건너가 교토국립박물관 문화재보존수리소에서 8년간 문화재 보존 과학을 배웠다.

1994년 귀국 후 朴동문은 문화재보존의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에 보존 과학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립연구소인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보급 문화재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가 박물관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 작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박물관의 예산에 묶여 재료비를 절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朴동문은 문화재 보존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한다.

『유물을 보존하는 작업에는 화학, 미술 등을 전공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보존처리 작업에는 대개 기본조사, 해체, 소독 및 세척, 배접지 제거 등의 수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인내와 끈기가 요구된다.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하기 힘든 작업이라고.

朴동문은 보존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재 보존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후학들을 양성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 옛 문헌들을 조사해 전통기법을 찾아 보존 과학에 더욱 한국적인 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모교 공대 徐甲亮박사

석·박사논문 24편 SCI에 등록

"탄탄한 이론이 좋은 결과 낳았어요"

지난해 모교 교수 1인당 SCI(과학논문 인용색인)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편수가 2.7편 정도였다. 공대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려면 논문 2편 이상 SCI에 게재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학원생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SCI에 논문 한편을 등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석·박사과정 6년 동안 20여편의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徐甲亮(96년 工大卒)동문은 지금 모교 공대 李泓熙교수의 지도 아래 Post-Doctor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 와중에 2편의 논문을 더 제출해 석·박사과정에서 등록한 논문수와 합치면 총 26편의 논문을 SCI에 게재한 셈이다. 徐동문은 재료화학 분야에서 반도체 형상화 공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고분자를 이용한 박리 현상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내 「비전통적 패터닝 공정 및 고분자 박리」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다.

석사 때부터 이미 3편의 논문을 SCI에 게재하기 시작한 徐동문은 현재 추가로 5편의 논문을 더 제출해 심사중이기 때문에 그가 쓴 총 논문편수는 31편이다.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SCI에 게재하거나 쓸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였다.

이런 성과 뒤에는 그 만큼 많은 좌절과 실패 또한 있었다. 많은 시행착오와 질타 속에서 그만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어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한다.

『석사과정부터 이론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보통 대학원생들이 이론보다는 실험을 위주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작정 실험만 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徐동문의 독특한 점은 유학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기들 대부분이 외국 명문대에서 유학할 동안 그는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국에 나가 공부하기보다는 자신이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 아래서 열심히 배워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徐동문은 오는 9월부터 미국 MIT에서 화학계의 저명한 화이트 사이드 교수와 노벨상 수상자인 밥 랭어 교수 등의 지도 아래 박사후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이곳에서 徐동문은 지금과는 다른 전공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그가 연구하고 있는 재료화학 분야에 바이오 사이언스를 접목한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 그 분야에 일인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며, 나아가서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동안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은 모두 이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亨〉

동문기업 탐방 ⑬ PSIA(주)

나노기술 선도하는 원자현미경 개발업체

「XE Series」 출시로 역대 최고성능 자랑

우리 인체는 수많은 세포와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하나 하나는 제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부여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도체 칩 하나로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보를 손안에 넣을 수 있으며, 성능이 뛰어난 현미경 덕택에 손가락 일부분을 소실했더라도 일일이 혈관 신경을 이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혈관 내를 돌아다니는 초소형 로봇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지금은 정보기술(IT) 시대를 넘어 생명과학기술(BT)과 나노기술(NT)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가장 뒤늦게 등장한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0억분의 1의 세계를 뜻하는 「나노」. 나노미터 크기의 초소형 입자를 다루는 나노기술을 이용해 반도체, 컴퓨터칩 및 극미세 기계부품을 만들게 된다면 엄청난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나노입자를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

20여 년간 쌓아온 기술과 기업적 마인드로 무장한 PSIA(주)(사장 朴尙一·81년 自然大卒)는 원자 및 분자까지 측정할 수 있는 원자현미경을 전문적으로 개발·공급하며 나노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미래형 벤처기업이다.

지난 1997년에 설립된 PSIA(www.psia.co.kr)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 및 연구용 원자현미경 전문업체로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1982년 부터 美스탠퍼드대에서 원자현미경 기술개발팀의 핵심멤버로 참여했던 朴사장은 그동안의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1988년 실리콘밸리에서 Park Scientific Instruments(PSI)社를 창업, 원자현미경 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직접 상품화시켜 사업적 기반을 다졌다.

朴尙一 사장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朴사장은 원자현미경에 대한 기술수요가 엄청난 속도로 상향세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 당시 벤처열풍이 불고 있던 국내에서 제2의 창업을 하기로 결심, 우리 나라의 우수한 인력을 접목해 지금의 PSIA를 탄생시켰다.

광학현미경이 수천 배의 배율을 자랑한다면 원자현미경은 최고 수천 만 배의 배율로 물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대기 및 액체 내에서도 작동하는 원자현미경은 바늘로 레코드판을 읽는 원리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바늘이 장착된 긴 막대 모양의 탐침이 원자와 밀고 끌어당기는 등의 작용을 통해 이동, 이러한 움직임을 읽어 물체의 표면을 원자 수준으로 보게된다.

특히 원자현미경은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웨이퍼 표면에 있는 흠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이며, 반도체 크기가 작을수록 그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이렇듯 원자현미경은 예전의 연구용 분석기기 수준에서 벗어나 반도체 표면의 결함을 발견하고, CD 및 자기 디스크에 쓰인 bit의 모양새를 보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 살아있는 세포내의 구조나 세포분열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분자합성 등 초소형 로봇 기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를 오래 전부터 간파한 PSIA는 결국 창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최초로 대형 LCD용 원자현미경 「SM5-LCD」를 개발하는 등 남보다 한발 더 앞선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LCD를 측정하는 일본기업은 있었지만 자동화 공정에 적합한, 대형액정표시장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은 PSIA가 처음이었다. 특히 완전자동화를 이루고 있는 기가바이트급 반도체 생산라인 등에서 자유자재로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정확성을 모두 겸비한 만능 제품이다.

창업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술면에서 국내 최고라는 찬사를 받아온 PSIA는 그동안 PSI社에서 공급받아온 제품을 판매하는 등 큰 매출을 올리지 못했으나, 최근 반도체 및 LCD의 표면결함을 원자단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연구용 원자현미경 「XE Series」를 출시해 본격적인 시장몰이에 나섰다.

「XE Series」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에서부터 사용된 부품까지 모두 국산화시켰다는 점. 현재 미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원자현미경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제품 시연을 본 외국 바이어들은 미국과 일본제품보다 20~30% 저렴한 가격과 두 배나 뛰어난 성능을 가진 PSIA 제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XE-150」까지 개발된 「XE Series」 가운데 「XE-100」은 타제품보다 정확성과 재현성이 뛰어나며 스캔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또 기존의 상이 일그러지는 현상을 말끔히 없앴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제품 설명 및 영상을 보고 대만 및 홍콩 등지에서는 벌써 제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 이를 발판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은 물론 미국에도 수출할 예정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국내에는 현재 2백여 대 정도가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朴사장은 『앞으로 해외에 국내 기술을 알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및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表〉

PSIA 직원들과 함께.

민족의 대학, 학문의 대학인 모교에서 국제사회를 활동무대로 삼아야 할 우리의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조달을 위해 생활전선에서 뛰고, 그것도 어려워 휴학 또는 조기 군입대로 自己啓發의 기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일반장학제도 외에 장학사업의 확충과 수혜 대상폭의 확대를 위해 「特志奬學會」제도를 운영하여 장차 이 사회의 동량이 될 후배들을 키우기 위한 장학금 지급과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지장학금 제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기부와 출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 또는 유증, 증여, 상속에 의해 출연자 명의의 특지장학회를 설립·운영하여 출연자 명의로 모교재학생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처 안내 TEL 02) 702-2233 FAX 02) 703-0755

모교소식

제23대 총장에
경제학부 鄭雲燦교수 임명

지난 7월 20일 모교 제23대 총장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鄭雲燦교수가 임명됐다. 〈인터뷰 6~7면〉

모교는 지난 6월 20일 전체 교수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한 鄭雲燦교수와 2위를 차지한 법학부 宋相現(63년 法大卒)교수를 제23대 총장 후보로 선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추천했으며,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鄭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鄭교수는 전체 교수 1천3백91명 가운데 1천2백10명이 참가한 연기명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6백67표를 얻어 최다득표자가 됐다.

신임 鄭총장은 1970년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72년 미국 마이애미대 대학원 석사학위, 76년 프린스턴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모교에 부임해 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우재단 이사, 재경부 금융발전심의위원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장, 모교 사회과학대학장을 맡아 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崔先珠(73년 美大卒)동문 사이에 1남1녀를 두었다.

부총장에 鄭明熙교수 취임
교무처장에 金宇哲교수

鄭明熙 부총장

金宇哲 교무처장

지난 7월 23일 모교 부총장에 의대 약리학교실 鄭明熙교수가 취임했다. 또 교무처장에 자연대 통계학과 金宇哲교수가 선임됐다.

鄭부총장은 71년 모교 의대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의대 교무부학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 대한의학회가 수여하는 분쉬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金교무처장은 71년 문리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퍼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장,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경제학부 金仁埈교수

지난 7월 16일 모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경제학부 金仁埈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金학장은 71년 모교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연구부처장, 경제학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경제학회 이사,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燮〉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에
成相哲개원준비단장 선임

모교 병원(원장 朴容晛)은 지난 7월 11일 오전 8시 연건캠퍼스 시계탑건물 제2회의실에서 간담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成相哲개원준비단장(사진)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장에 선임했다.

成원장은 73년 모교 의대를 졸업한 후 81년 의대 정형외과 전임강사로 부임해 의대 부학장, 진료부원장, 대한스포츠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은 올해 11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내년 3월 모의환자 진료를 시작으로 외래환자 부분진료를 거쳐 6월 개원과 동시에 진료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 병상 수는 4백 병상으로 개원한 후 2005년까지 8백 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成원장은 현재 개원을 준비하면서 우수인력의 확보, 의료진 연구여건 조성, 부족한 재원의 확충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교수 이하 정년
연구실적 미달시 인정 못받아

모교는 지난 7월 10일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개정 규정」을 확정, 올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정교수와 함께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부교수는 앞으로 세계 수준 대학의 해당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자, 세계 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자,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 단체의 학술상 수상경력자 등을 제외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부교수, 조교수 등 전임교수가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을 경우 승진 소요연한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전임교수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심사때 저서와 번역물, 논문 등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공동연구물의 경우 「제1저자」와 「책임저자」를 가려 연구실적물 인정점수를 차등화한다.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공동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전 규정에서는 공동연구물을 자신의 실적으로 제출하면 제1저자와 책임저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점수를 부여했다.

재직교수들도 재계약과 승진 심사때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일 경우에만 공동연구물을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교 소식 직접 보세요 http://www.snu.ac.kr
대학신문은 이곳으로 http://www.snupi.com

「자랑스런 서울대인」 열두 번째 후보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매년 개교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한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적격자를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31일까지 모교 기획담당관실(전화 : 880-5081, 5082)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대 가족

金尙植 前예술의 전당 사장

4富者 부러울 것 없는 4父子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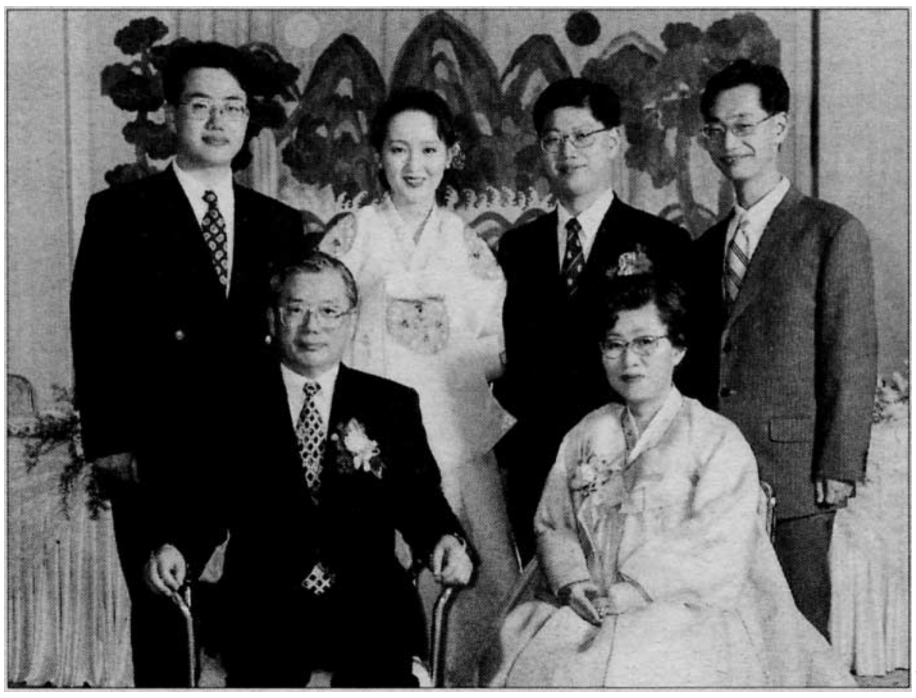
"세 아들 모두 법조인 될 뻔했습니다"

문화공보부 예술·출판·방송과장, 문화국장, 방송관리국장을 거쳐 예술의 전당 사장, 서울예술단 이사장, 한국영화진흥공사 사장,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평생을 문화·예술분야에서 헌신하며 남부럽지 않은 길을 걸어온 金尙植(61년 文理大卒)동문. 하지만 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주저 없이 「연극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어릴 적부터 글을 잘 쓰거나,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연기를 잘 한다든지 직접 예술을 창조해내는 소질은 타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여전히 예술 분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직접 뛰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러한 예술인들을 뒤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왜 하필 연극배우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지만, 연극배우는 적어도 수십 명의 전혀 색다른 인생을 연기하기 때문에 각 인생살이를 자기 삶에 투영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작은 배역이라도 훌륭히 소화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이렇듯 金동문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뮤지컬 배우, 연극인, 발레리나와 같은 예술인보다 때론 더 빛나 보이는 이유는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열정을 국내 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고스란히 바쳤다는 점이다.

특히 그는 예술의 전당에서 근무하던 시절, 바스티유 오페라단을 초청해 성공적인 무대를 관객들에게 펼쳐준 기억이 아직도 아련하다고 말한다. 스페인에서의 첫 해외 공연도중, 대형사고를 당한 바스티유 오페라단은 이후 해외공연을 무조건 사절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때마침 상임지휘자로 있던 정명훈씨와 프랑스 문화원에 근무하던 후배 등의 도움으로 金동문은 바스티유 오페라단을 우리나라 무대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金尙植·金浩暎동문, 金浩徹동문 내외, 金浩潤동문.

이처럼 예술분야에서 평생을 지내온 金동문이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자녀(3남)는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매번 부족했던 공연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불철주야 돌아다니는 등 일에 모든 것을 바치던 아버지가 조금은 못마땅했기 때문. 그래서 金동문은 『세 아들에게 사회에 크게 공헌해라든지 큰 일꾼이 되라고는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일에만 매달리다보니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킨다거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못돼 줬어요. 다만 한가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가족은 절대 되지 말자는 얘기를 늘상 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하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이해해주리라 생각했다』고 말한다.

다행히 자녀들이 金동문의 뜻을 성실히 따라준 결과, 세 아들 모두 서울대를 들어가는 쾌거를 이뤘다. 게다가 金동문의 만류가 없었더라면 아들 셋 모두 법대 동문이 되는 기록을 세울 뻔했다.

친할아버지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장남 金浩徹(89년 法大卒)동문은 어릴 적부터 정의감에 불탔던 청년. 이후 그는 스스로 검사가 되겠다고 주장하면서 소신껏 법대를 들어갔다. 金尙植동문이 오랜 문화공보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박봉의 월급으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던 시절, 金浩徹동문은 자신만큼은 가족들에게 풍족한 삶을 안겨줘야겠다고 결심했었다. 하지만 부전자전이라고나 할까. 검찰공무원의 길이 자신에게 적격임을 깨달은 金浩徹동문은 지금은 아버지의 공무원 시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세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金尙植동문과 공통된 점이 있는 차남 金浩潤(92년 法大卒)동문은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다. 金尙植동문처럼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는 재능은 없지만 클래식 음악을 듣고 분석하는 능력은 수준급. 3명의 남자들(?) 사이에 있어 형제애가 유난히 끈끈한 차남 金浩潤동문은 형과 함께 법조계에서 상부상조하며 지내면 좋겠다고 판단, 법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 공무원보다는 변호사로 자신의 인생을 펼치기로 결심한 金浩潤동문은 최근 삼성동 COEX에서 절친한 선배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삼남이자 막내인 金浩暎(94년 經營大卒)동문 역시 형들의 뒤를 이어 법대를 들어가려 했지만, 특이하게도 아버지의 반대로 돌연 경영학을 전공하게 된 인물. 세 아들 모두 법대 출신이었다면 어쩌면 주위로부터 더 많은 유명세를 치렀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평범한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던 金尙植동문은 막내아들까지 법대를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생각, 사회학이나 경영학 쪽으로 갈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모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도미한 金浩暎동문은 스탠포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Wharton School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형들에 비해 두 배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는 金尙植동문은 미안한 점도 있지만, 세 아들 가운데 사업가 기질이 가장 많은 막내아들에게 조금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픈 마음에서라고.

40여 년간의 현직생활을 접고 현재 부인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金尙植동문은 끝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회고록을 꼭 쓸 생각』이라며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온 과정과 아버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부족했던 점을 정확히 짚어내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表〉

서울大人的資源의 HUMAN NETWORK化 宣言!!

<<서울大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 직장별명부(824페이지)
1200여 직업 및 직장 분류에 의한
10만여명 수록

▲ 인명록(2480페이지)
RAW DATA 기준 28만 6천명
수록

▲ 인명록 · 직장 · 직업별
명부 통합

▲ 인명색인(544페이지)
28만 6천명 수록

서울大學校를 모교로 하는 20여만명의 우리 서울大人을 한자리에 집약 · 정리한 「서울大人名錄」을 〈CD-ROM TITLE〉, 〈색인부〉, 〈직업 · 직장별 명부〉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서울大人名錄」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동기와 선 · 후배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모교가 세계속의 유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힘과 뜻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1차 인쇄분은 우선 예매를 하신 동문들께 우편발송 중에 있습니다.

· 「서울大人名錄」은 예매 신청에 의한 한정판 제작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차분 인쇄에 이어 좀더 UPDATE되고 UPGRADE된 내용으로 수정 보완된 2차분 인쇄를 8월말로, 3차분 인쇄를 10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1차 인쇄분을 받으신 동문 중 오기 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은 인명록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추후 인쇄분부터 수정 ·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시는 동문들의 신규 자료나 인적사항 변동도 연락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 E-mail, Fax, 전화 주문을 하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 예약 및 자료 신규입력 및 변경 안내

· 서울大學校總同窓會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 :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5 TEL : 02)704-8301(直) FAX : 02)704-8564 E-mail : snua2002@korea.com
· http://www.snua.or.kr

SNUA OPINION LEADER

21世紀 東아시아 平和와 安定을 위한 韓中協力

사단법인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제1차 한·중 토론회에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이 한국대표단장으로 참석, 기조연설한 내용을 발췌해서 싣는다.

오늘날 未來學者들은 물론 모든 世界의 知性들은 한결같이 21世紀는 아시아·태평양의 世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아시아는 世界에서 가장 力動的인 地域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奇蹟은 2次大戰의 敗戰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오늘날의 經濟大國으로 成長한 日本과, 6.25 戰爭의 廢墟에서 「漢江의 奇蹟」을 이루어 낸 韓國, 그리고 江澤民 主席의 말처럼 「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을 目標」로 改革, 開放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오늘의 中國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奇蹟은 아시아人의 歷史와 傳統, 文化의 所産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繁榮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이 地域의 安定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安定은 美國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安定은 결코 自然攝理에 의한 것이 아니고, 美國의 힘이 뒷받침된 아시아 各國 間의 힘의 均衡의 결과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本來 아시아인들은 歐美諸國 사람들과 달리 集團安全保障이라는 槪念에 친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아 각국은 自由니 民主主義니 하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서 各國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價値觀을 위해 목숨과 國運을 걸고 協力해야겠다는 共通된 意識이 없거나 弱합니다. 아시아에서 重要視되어온 것은 나라마다의 國家利益이었으며, 獨立自尊만이 最高의 價値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世界次元의 冷戰은 종식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는 冷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軍事費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冷戰 後의 情勢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는 歐美 各國과, 日本 中國을 포함한 東아시아와의 사이에 커다란 格差가 있습니다. 歐美에 있어서의 冷戰의 終焉은 緊張의 劇的인 緩和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아시아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本人은 여러분께서 이번 회의에서 世界的 次元의 冷戰의 종식이 왜 아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萬若에 냉전이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각 나라는 그렇게 認識하고 있지 아니한가에 대해 가르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本人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東아시아에 있어서 緊張의 주된 原因은 군비경쟁, 대량살상 武器의 비축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理解의 不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討論會의 주제인 「東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을 위한 방법」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간의 相互理解를 높이는 方法을 찾는 일, 그리고 그 組織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1世紀의 國際秩序는 美國과 中國의 關係를 軸으로 새롭게 構築될 것이라는 認識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韓國은 中國과 美國이라고 하는 두 힘의 틈바구니에서 두 개의 自己確信에 찬 價値를 내세우는 나라사이에서 살아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 그 조직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 과제

美國은 많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 내의 이질적 집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도 미국은 共同理念을 強하게 내세우는 體質을 가지고 있습니다. 政治的으로는 自由民主主義를, 經濟的으로는 市場經濟原理를 社會統合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온 世界에 發信하고 있습니다.

한편 中國은 「人類文明文化의 中心은 中國」이라는 中華思想的 自尊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中國은 中國의 전통가치와 文化의 확산으로 世界平和秩序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외형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서로 尊敬과 愛情에 가까운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美國에서 본다면 中國은 「속이 깊은 아시아 文明의 中心」이며, 한편 中國에서 본 美國은 저력을 갖춘 「憧憬과 羨望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中國과 美國 關係는 冷冷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으나 두 나라 사이에는 決定的 對立을 避해가는 力學이 作用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重要한 存在」로 받아들이는 深層心理가 存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近來 美國과 中國 間의 次世代 交流를 위한 布石을 注目합니다. 本人이 中國을 방문할 때마다 實感하는 것은 政界, 產業界, 官界의 指導層이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中國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北京의 中關村, 하이테크파크의 지도급 인사들의 殆半은 40代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大部分이 美國 留學生 즉 留美派라고들 하더군요. 『優秀한 學生일수록 美國에 간다』는 것이 中國의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主體性을 가지고 未來에의 씨를 뿌리는 努力』— 그 연장선상에서 「偉大한 中國 復興」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음을 實感합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交易의 중요성입니다.

국가간 交易은 平和를 가져오며 經濟交流를 증대시켜나가면 국가간 紛爭은 줄어듭니다.

貿易과 투자는 교역당사국 雙方의 經濟成長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民主化를 촉진합니다. 中國이 이런 과정을 통해 民主國家로 발전해 갈 때 他民主國에 武力 威脅을 行使하지 않게 되리라 — 이것이 美國을 비롯한 中國 周邊 民主國家들의 期待입니다.

力動的인 아시아 國際政治를 결정하는 큰 變數로 美中 관계 외에도 美日同盟의 向方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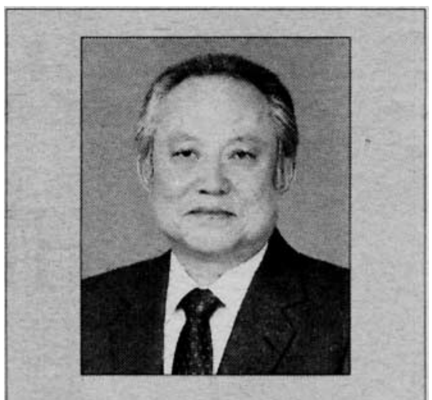
현재의 美國과 日本의 經濟力과 軍事力을 합친다면, 아시아에서 壓倒的인 優位를 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美日관계가 現在처럼 앞으로도 계속 장밋빛 同盟관계를 유지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美日 두 나라가 긴밀한 經濟協力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에 걸맞게 文化的인 親近感까지도 구축해가며 太平洋 兩岸을 잇는 다리를 놓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때 『이 地球上에서 日本이 사라질 때까지 日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美國人의 情緖가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졌을까? 戰爭이 政治의 또 다른 手段이라 했지만, 21世紀는 經濟야말로 政治의 또 다른 手段이라고 하는데 美日 蜜月關係가 21世紀에도 이어져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日本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獨自的 政治的 指導力을 追求해 갈 可能性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日本의 태도변화가 일어날 경우 中國과 러시아, 韓國에게는 어떤 모양의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며, 美中關係가 世界의 새로운 軸으로 형성되어 가려는 마당에 變化되어가는 日本의 姿勢는 앞으로 國際政治舞臺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럴 때 日本을 바라보는 우리 韓國人의 눈도 더 冷徹히 더 分明한 곳에 焦點을 맞출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向方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강대국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분명해진 것은 冷戰 後, 舊소련 안에 새로 獨立한 共和國이 여러 개 생겼기 때문에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처럼 새로운 覇權主義 국가로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다만 러시아의 관심이 앞으로는 유럽보다는 아시아로 향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러시아와 中國, 러시아와 日本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展開되어갈 것인가? 中러, 日러간의 關係가 깊어진다면 러시아와 美國과의 균형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 이러한 문제들에 注目이 갑니다.

국가간 교역은 평화를 가져오며, 경제교류를 증대시켜 나가면 국가간 분쟁은 줄어듭니다

무슨 일에나 陽地가 있으면 陰地가 있듯이 中國의 未來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을 수 없지요. 人口 13億의 中國經濟가 과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高度成長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경우, 食糧, 에너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韓國도 익히 經驗한 과정이지만 이른바 開發 獨裁 단계를 지나면서 거의 예외 없이 噴出하는 人民들의 自由와 政治民主化에 대한 욕구, 특히 젊은 世代들의 改革要求를 어떻게 진정시켜 나갈 것인가? 山積한 그리고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새로운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要求와 不滿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中國內에 언제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政治的 안정과 社會的 均衡이 이루어질 것이며, 균형이 실현되기까지 있을 수 있는 混亂의 幅은 어느 정도일까? 등등의 의문점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金在淳

- 51년 모교 상대 경제학과 졸업
- 대한민국 前국회의장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고문
- 서울대총동창회 명예회장

다음으로 눈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東北아시아의 安定, 특히 中國 周邊國의 平和유지를 생각할 때, 臺灣과 北韓 문제가 가장 눈에 띄는 不安定 要素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多少 餘談이 될지는 몰라도 臺灣에 관해서 저의 經驗談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2년에 韓國의 盧泰愚 政府가 中國과 國交를 맺을 때, 매우 고통스런 역할을 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國交를 맺고 있었던 臺灣政府와 斷交를 하게 되어 臺灣에 陳謝 使節團長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臺灣의 指導者들에게 드린 저의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謝罪의 뜻으로 「肉袒負荊」의 心情을 吐露하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찍이 蔣經國씨가 한 말의 引用이었습니다. 『時代가 바뀌고 환경이 變하면 새로운 變化를 追求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變化無雙한 오늘의 時運이 당신들과 우리들을 헤어지게 했지만 앞으로 變化하고 또 變하는 것이 人間의 歷史가 아니겠소. 우리 두 나라의 長期的인 國益이 무엇인지를 冷靜, 沈着하게 찾아내는 것이 우리 두 나라 政治人들에게 주어진 責務가 아니겠소. 아무쪼록 크고 넓고 깊은 中國의 傳統文化를 간직해오는 貴國의 政治家와 國民들의 寬大한 보살핌을 바랍니다』

〈23면에 계속〉

뜨락

어지럽게 널린 속 빈 향토박물관들

李基滿(85년 社會大卒)도서출판 큰기획 대표

최근 들어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향토박물관」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짓고 있다. 이들은 ○○○기념관, ○○○박물관, ○○○향토사료관, ○○○향토역사관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일선 기초단체인 시·군·구는 물론 도 단위의 광역단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이 같은 박물관 건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주민에게 어떻게든 한발 더 다가가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이 땅을 먼저 살다간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소중하게 갈무리하고 보여주고 있는 박물관이 이렇게 향토박물관의 형태로 전국 곳곳에 들어선다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반갑고 고마운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향토박물관들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과연 얼마나 제대로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면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들이 한둘이 아니며 도대체 일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한숨마저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보자. 많은 향토박물관들은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생활사 관련 내용을 대개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전시되는 자료는 대부분 일부 골동품상들에게서 일괄적으로 구입돼 전시된다고 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출처불명의 민속자료들이 전국의 전시실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태백 산골의 소쿠리가 부천 아파트 숲으로 가고, 양평 남한강의 어망코가 제주 큰바다로 가는 식이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약과다. 대량복제되는 유사모조품들이 활개를 치며 당당하게 전시공간을 점령하는 현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조상들의 삶이란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대강 고만고만 비슷했고, 또 없는 물건 비슷하게 만들어 전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자료(사료)란 그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의 출처와 내력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그 출처와 내력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안 되는 숱한 생활사 관련 자료들은 전국 곳곳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골동품상에 헐값에 팔려 나갔다가 몇 차례 돌고 돌아 생활민속자료란 이름을 달고 수많은 유사모조품과 함께 박물관 한 모서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숙제 차원에서 향토박물관을 찾는 어린 학생들은 한번만 왔다가는, 두 번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곳에 전시돼 있는 유물자료들이 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삶, 문화와 만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매개체라기보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거나 숙제의 대상일 뿐이다. 역사와 삶의 맥락이 단절된 유물자료들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미 건립되어 활용 중이거나 현재 건립 중인 향토박물관들은 한 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이처럼 그 내용들이 많이 부실하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생활사 관련 향토박물관들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일선 관계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타령이 얼마나 타당할까?

일반적으로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려면 건축설계비와 건설공사비로 보통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입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문제는 일의 순서다. 일단 건물부터 지어놓고 그에 맞춰 유물과 자료구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완전히 옷에 몸을 맞추는 격이다. 왜 이 같은 일들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외 없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까?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서가 일단 작성되면, 바람같이 설계공모를 하고 건축업체를 선정해 공사부터 해버린다. 그리고 건물이 번듯하게 들어선다. 유물자료의 확보와 구입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해서 특색 없는 애물단지 향토박물관들이 일사불란하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과연 박물관이 필요는 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성격의 박물관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러한 성격에 맞는 유물과 자료의 확보는 어떻게 가능한지? 누가 그것을 담당해나갈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련만 늘 건물부터 먼저 솟는다. 그러고는 유사복제품과 출처불명의 자료들이 삽시간에 전시실을 점령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통적 식생활 속에 건강비결 있다

張在希(93년 家政大卒)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사

요즘 매일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보도되는 기사 중 하나는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의 피해에 관한 기사이다. 또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됐던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식품에 관한 기사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고, 또 현재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지 정치나 경제에 관한 기사보다 이런 종류의 기사에 더 관심이 간다.

다이어트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여성들의 관심의 대상이며, 요즘은 남성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비만이 대부분의 만성질환 원인으로 작용하고 비만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우리 나라 여성들의 더 큰 문제는 거의 모든 여성이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잡지나 신문광고를 보면 한 달에 7~8㎏, 혹은 그 이상을 확실히 빼준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또 그 광고의 모델들은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이 아닌 깡마른 모델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식품이 아닌 운동기구 등 다른 것을 이용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식품이라면 그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여성들에게 다이어트가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라면 남성들에게는 정력이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 정력에 좋다면 못 먹을 게 없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불법 약물이 혼입된 불법식품이 암거래되고, 다이어트식품이라면 만사 제치고 먹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이 혼입된 식품들을 들여온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를 모두 기능성식품 또는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한다. 식품이라면 식품으로서의 기능성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약과 같은 효능을 광고하고, 소비자들 또한 그러한 반짝 효능을 기대하면서 식품이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식품 또는 기능성식품이라고 판매하는 불법제품들을 의심하지 않고 먹는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식품의 제조나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엄격히 제한되는 편이다. 식품에 어떤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국가에서 인정된 것이어야 하는데, 식품의 원료를 검토할 때는 유용성이나 기능성에 앞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무리 몸에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래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거나, 특정계층, 예를 들어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에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원료라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물론 의약품의 경우는 다르다.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원료의 사용이나 어느 정도의 기능성 또는 유용성의 표현을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성이나 기능성에 관한 책임 또한 제조자가 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거나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이렇게 엄격한 식품관리 때문에 더욱 불법적인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高價에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소비자가 선택,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성 식품군을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 이전에 건강에 좋거나 어디 어디에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따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하던 때에는 만성질환이니, 비만이니 하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다. 서양의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식생활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또 이런 식생활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전통 식생활이 얼마나 건강한 식생활이었는지는 지금도 세계의 사람들이 놀라고 있지 않은가. 김치, 된장, 젓갈과 같은 여러 가지 발효음식들을 비롯한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 등등… 밖에서만 좋다는 것들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을까.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깊은 지식의 샘물 퍼올려 사회에 뿌려주길 …

朴 薰 : 朴 釘(86년 農大卒·박정어학원장)동문 형

나는 서울대인을 잘 모릅니다. 내 주위에 서울대인이 극히 드물기도 하지만, 그 존재가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물론 가까이 지내던 고교 동창들이나 선후배가 상당수 서울대인이 되었지만 무슨 까닭인지 고교 졸업 이후에 그들은 모두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단 한 사람의 서울대인인 아우를 통해 본 서울대인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우 한 사람이 서울대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엄연히 그는 서울대인 중의 한 사람이 명백하며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문득 20여 년 전의 일이 돌이켜졌습니다. 아우가 고 3때 나와 선친께 대학 진학문제를 의논하며 「서울대학교」와 「농대」를 꺼냈을 때, 우리는 놀라는 한편 매우 의아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중학교 때부터 운동(탁구)선수로서 충분히 입시공부를 못했기에 서울대에는 성적이 못 미치리라는 추측에서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고 2때 탁구선수를 그만 두겠노라고 해 코치선생에게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십 대나 맞았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미리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책을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체벌과 폭력을 제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하필이면 왜 「농대」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렸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생물학을 하고 싶은데, 성적이 조금 모자라 농생물학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나중에 대학원 등에서 더 공부하면 될 것이고 서울대학 특히 농과대학은 장학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의 어려운 경제 형편상 유리할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때 나는 「수원농대」를 졸업한 우리 마을에서 농촌활동 및 문화원장 등을 하시던 지역 유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아우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우를 통해서 「의지」와 「노력」과 「성취」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어 서울대인은 의지와 노력을 통한 성취인인 것입니다.

다른 일례입니다. 두 해 전, 아침 일찍 우연히 지역신문 기자와 나 그리고 아우가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파주의 북쪽지역에 이상한 가축병이 돌아 확실한 병명을 조사중이란 말을 전했습니다. 아우는 그 증상을 자세히 더 듣고는 『뭉툭한 굽(蹄) 발톱은 초식동물에게서 발달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나 돼지처럼 짝수 굽을 가진 짐승을 우제류(偶蹄類)라 한다. 그런 짐승에게만 걸리는 병으로 구제역(口蹄疫)이라 하는 전염병이 있다. 공기와 물체 접촉 등으로 쉽게 퍼지는데, 빨리 살(殺)처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나는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런 지식이 바로 이 사회에 쓰여져야 하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라건대, 의지와 노력으로 이룬 성취, 지식, 지성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서울대인이 돼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깊은 지식의 샘물을 퍼 올려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취라는 것은 또 미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곳에 이를 때 완성될 것입니다. 나만의 서울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울대, 국민의 서울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말은 비단 서울대인이 아니라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목표입니다.

박 성 희

문화산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속리산 법주사와 경희식당

며칠 전 속리산 법주사에 다녀왔습니다. 당일코스였던 만큼 법주사에 들렀다가 유명한 경희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화양계곡을 따라 잠시 올라갔다가 돌아왔지요.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때 의신조사가 처음 지었다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건물은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옛 모양을 되살려 재건한 것이지만, 쌍사자석등(국보 5) 석련지(국보 64) 사천왕석등(보물 15) 마애여래의상(보물 216) 등 국보와 보물은 1천5백년 전 조상들의 숨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는 듯합니다.

팔상전(捌相殿 : 국보 55)의 단청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퇴색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칠한 이의 정성과 뛰어난 감각을 그대로 전합니다. 국보라는 걸 몰라도 어딘가 남다른 건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뿐인가요.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과 망개나무(천연기념물 207)는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자연의 놀라운 힘을 알려주지요. 국보와 보물은 아니라도 3천명의 스님이 사용했다는 돌물통과 무쇠솥 역시 감탄하기에 충분하구요.

다만 새로 조성한 거대한 금동불상(높이 33m)은 너무 큰 데다 번쩍거려 옛 절의 분위기와는 영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창 진행중인 대웅전 불사를 보는 마음도 왠지 기쁘고 뿌듯하지만은 않았지요. 물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인 만큼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게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유적이나 유물이 중국 것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얘기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이란 크기가 아니라 특성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산 도자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눈엔 소박한 듯 섬세한 우리 도자기가 제일이다 싶은 것처럼 건물이나 불상도 크다고 해서 모두 눈길을 끄는 건 아닐 터이기 때문입니다.

옛절이 지닌, 깨지고 빛바래고 얼룩진 것들 속에 감춰진 은근함과 정겨움에 대한 감탄과 금동불상에 대한 까닭 모를 아쉬움이 교차된 속에 찾아간 「경희식당」의 화단엔 나팔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시멘트마당은 생경했지만 화단의 나리꽃과 봉숭아도 반가웠지요.

「경희식당」은 「외국인도 알아주는 50년 전통의 속리산 한정식 전문집」「격식을 갖춰 제대로 상을 차려내는 한정식집」「역대 대통령이 식사한 집」 등 각종 수식어가 붙어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경희식당이란 이름은 이곳을 시작한 남경희 할머니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경희 할머니는 1950년 대전에서 개업한 뒤 74년 속리산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충청북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이기도 하구요. 저는 할머니의 요리비법을 담은 「최고의 한식밥상」이라는 요리책을 구입한 뒤 「금과옥조」로 여겨 왔습니다.

이 책엔 무엇보다 다른 책엔 없는 「집에서 만드는 천연조미료」(멸치국물, 새우국물, 다시마가루, 표고버섯가루, 장조림간장, 북어가루 등), 한식에 잘 어울리는 고명(곱게 썬 파, 지단 미나리초대, 실파초대, 대추채, 표고채 등), 음식 맛 살리는 기본양념장(겨자장, 양념간장, 집장, 쌈장 등) 만드는 법과 기본 반찬 조리법이 상세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언제고 속리산에 가면 경희식당에 다녀오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훈클럽」 답사길의 점심식사 장소가 경희식당이라는 사실은 솔직히 행복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큰방으로 들어가는 도중 카운터에 앉아 계신 남경희 할머니는 사진과 너무나 똑같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하지만 단아한 모습은 서울 출신 양반가 할머니임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았지요.

하지만 정작 상을 마주 대한 저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등 각종 김치에 고사리나물 콩나물 고구마줄기볶음 표고버섯볶음 등 각종 나물, 수삼무침 도라지생채, 밤정과 호두땅콩정과까지 상 하나 가득 차려진 음식은 소문처럼 마흔 가지는 족히 돼 보였지만 가짓수에 비해 이거다 싶은 게 없었거든요. 간장게장은 너무 짰고 메인 요리로 내놓은 불고기도 별다른 특색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먹었는데도 반찬 대부분이 그대로 남는 건 안타까웠습니다. 남은 반찬을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구요. 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쓴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영 입맛이 썼습니다.

게다가 후식 또한 식혜나 수정과 같은 한식음료를 주지 않고 입구에 설치된 커피자동판매기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음식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서비스하는 이들이 친절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약을 했다곤 해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이닥친 만큼 다소 어수선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밥을 다 먹을 때쯤 국을 갖다주는 건 곤란하다 싶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음식은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내는 소문만큼 큰힘을 가진 게 없을 테니까요. 인터넷에 아무리 그럴싸한 소개가 떠었다고 해도 한번 먹어본 뒤 고개를 가우뚱거리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속리산 나들이는 즐거웠습니다. 장마철 중간에 반짝 떠오른 태양 아래 촉촉한 숲은 싱그럽기 짝이 없었구요.

하지만 세상에 너무 가까워진 듯한 절이나 이름에 비해 실망스러운 음식점, 똑같은 기념품은 왠지 서글펐습니다. 화장실이 많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유적지란 그래도 유적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근처에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큰 욕심일까요?

전북·전주지부

姜賢旭도지사 취임 축하연 개최

전북·전주지부동창회(회장 柳仁相)는 지난 7월 23일 전주시내 리베라호텔에서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본회 부회장)이사장, 우석대 張明洙총장, 전북일보 徐彰熏사장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 겸 姜賢旭(61년 文理大卒)전북도지사 취임 축하연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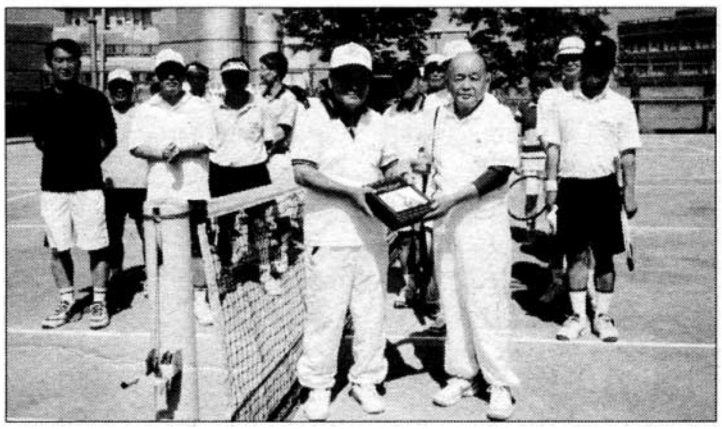
이날 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동문들이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어 감사하다』며 『새로 임명된 여러 인사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姜賢旭도지사는 『동문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그 동안의 경륜을 다 바쳐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새로 부임한 전주대 李時榮(59년 文理大卒)총장, 金完柱(70년 文理大卒)전주시장, 林來玄(77년 法大卒)전주지검장, 柳成葉(84년 社會大卒)정읍시장 등에게 축하인사를 했다.

약학대학

친목 바둑 및 테니스대회 개최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6월 2일 서초동 소재 일품기원에서 2002년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A조(호선) 및 B조(치수대국)로 나눠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A조에 尹光洙(73년卒)동문이, B조에 許明權(76년卒)동문이 각각 우승했다.

이날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조 준우승 : 孔錫模(79년卒), 3위 : 孫善一(64년卒), 4위 : 鄭文琪(77년卒)동문. △B조 준우승 : 崔鎭爽(66년卒), 3위 : 黃善灝(60년卒), 4위 : 李奎鎬(65년卒)동문.

한편 지난 6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테니스코트에서 회원 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A, B조로 나눠 복식 리그전으로 치른 이날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 李圭憲(82년卒)·李東洙(88년卒)동문, 준우승 : 李炳星(78년卒)·김번겸(약대 행정실 직원). △B조 우승 : 金榮培(59년卒)·趙南春(62년卒)동문, 준우승 : 朴世鎭(48년卒)·金泰旭(71년卒)동문.

서울대 인명록 발간

직업·직장별 명부와 CD도 함께

본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인명록 발간사업이 지난 7월 23일 초판 1쇄를 찍음으로써 결실의 첫 단추를 열었다. (17면 광고 참조)

글로벌시대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를 담은 CD-ROM TITLE과 직업·직장별 명부를 함께 제작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기록과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인명록(색인부 포함)과 직업·직장별 명부, CD-ROM TITLE이 담긴 한 세트를 한정판으로 예약을 받아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1쇄 발간 전에 예매를 신청한 분가운데 1차분은 이미 발송이 완료됐으며, 2차분은 8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다.

학부는 물론 대학원·단기과정 출신 등 중복자를 포함해 28만6천명이 수록된 인명록을 발간함으로써 동문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가 증진되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동창회와 모교 사랑의 의미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현재 동문정보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8월말 예정으로 2쇄 인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명록에 기록된 동문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록되었을 경우, 우편·팩스·e-mail 등으로 상세히 알려주면 수정해서 인쇄할 예정이다.

(구입 및 수정문의 : 서울대 인명록 편집실,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5, 전화 : 704-8301, 팩스 : 704-8564, e-mail : snua2002@korea.com)

수의과대학

모교 이전에 따른 기념물 증정키로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7월 8일 역삼동 소재 「아세아도원」에서 회장단 모임 및 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직능별로 팀을 구성해 일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수원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모교 건물에 동창회에서 모금한 기부금으로 기념물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특히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수여하게 될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에 대한 후보자 및 선정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表)

SNUA OPINION LEADER

〈18면에 이어〉

이렇게 臺灣을 다녀오면서 한 말은 오늘날 中國의 지도자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臺灣문제로 인해서 東北아시아의 安定과 平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속이 깊은 아시아 文明의 中心國家」답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대 초에 닉슨(Richard Nixon)대통령을 처음 만난 毛澤東 主席의 말은 이러했지요. 『우리들은 그들(臺灣)없이도 당분간 해나갈 수가 있다. 臺灣문제는 100年 後에 해결해도 괜찮다』고 했지요.

키신저(Henry Kissinger)는 中國 指導者들은 『些少한 점보다는 信賴 關係를 만들어 내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인다』고 했는데 참으로 깊은 뜻을 담은 말이라고 여깁니다.

끝으로 우리 韓半島의 統一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韓國이 東아시아의 強大國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번영의 길을 찾아가는 데는 지난날 못지 않게 앞으로도 멀고도 險한 길이 이어질 것이라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韓半島의 統一에 관해 생각할 때 多年間 西獨의 外相으로 東西 진영과 美 蘇를 끊임없이 드나들며, 獨逸統一을 이루어 내는데 공헌했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 D. Genscher)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독일은 주변 국가들에게 罪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무 나라도 우리의 統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蘇聯은 우리가 統一되어 다시 強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統一을 서두르지 않고 周邊 國家들의 信賴를 회복하는데 모든 努力을 기울였습니다. 罪값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努力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世界平和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周邊 國家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統一이 可能했습니다.

그런데 韓國은 周邊 國家들에게 罪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周邊 國家들의 合意를 끌어내기가 보다 쉬울 것이고, 주변 국가들이 合意하면 南北統一은 可能하다고 봅니다. 독일은 너무 強해서 分斷되었고, 韓國은 너무 弱해서 侵略과 分斷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南北이 統一되어 한 나라가 되면 결코 弱한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분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合意하면 南北統一이 可能하다. 그러니까 모든 外交努力을 기울여, 주변 국가들의 合意를 이끌어 내도록 하라』는 겐셔 長官의 권고가 항상 귀에 쟁쟁합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는 주변 국가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自身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歷史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反省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統一을 생각할 때 제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人類 歷史를 되돌아보면 歷史의 轉換은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例가 많습니다. 가깝게는 舊蘇聯의 붕괴가 그러했고, 伯林障壁의 붕괴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豫想할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러운 속도로 붕괴했습니다. 물론 오랜 준비 기간이 전제됩니다만 우리의 통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눈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經驗을 통해서 저는 歷史에 介入하는 어떤 超越的인 存在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超越的인 存在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運命 또는 世界精神, 歷史의 意志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矛盾이 쌓이면 그 矛盾을 解消하려는 어떤 힘이 마치 地震처럼 급작스럽게 強烈하게 作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南北統一의 새아침도 때가 오면 어느 날 갑자기 환히 밝아지리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未來를 말하지 않는 나라가 發展한 例가 없습니다. 날로 빨라지는 통신, 교통속도로 世界는 상대적으로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太平洋 멀리서 水平線 넘어 우리의 祖國, 韓半島를 바라볼 때, 中國과 日本, 그리고 統一韓國, 이 세 나라가 사이좋게 이웃으로 共存共榮하지 못할 까닭이 없어 보입니다.

本人은 東아시아에서 긴장완화를 圖謀하는 일은 實現可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東아시아에서의 緊張은 서로 對峙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武器의 質이나 量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認識의 문제와 將來에 대한 不確實性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關係各國의 努力 如何에 따라 긴장 解消의 可能性이 크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문제는 서로간의 信賴」라는 말입니다. 이런 信賴와 理解를 쌓아가는데 내일 있을 韓中, 中韓 兩國의 知性人들간의 討論이 크게 공헌하는 바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맺습니다.

간호대학

9월 4일 동문바자회 개최키로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7월 8일 모교 연건캠퍼스 임상의학연구소 가든뷰에서 제52회 전체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9월 4~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앞 체육관에서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동문바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알뜰 시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자회는 그 동안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개최해왔다.

바자회 준비위원회장에 朴良子(64년卒)부회장을 선출했으며, 준비위원에 兪淑子(63년卒)부회장, 서울대병원 李愛珠(69년卒)간호부장, 李금라(74년卒)기획이사, 삼성서울병원 成英熙(76년卒)간호부장, 李仁淑(77년卒)상임이사, 아산병원 郭月熙(78년卒)간호본부장, 서울대병원 金玲美(81년卒)간호행정팀장을 선임했다.

또 매년 2학기에 가정간호과정 재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10월 14일로 정하고, 졸업 40주년을 기념하면서 72학번 동문 40여 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최고산업전략과정

골프대회서 24기 단체우승 차지

좌로부터 모교 姜泰晋교수, 단체우승을 차지한 24기 邊大煥·韓順模동문, 趙회장.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趙炳祐)는 지난 7월 8일 인천그랜드CC에서 골프회 崔翔五(14기)회장, 孫昌根(14기)총무, 徐在烈(5기)총간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24기가 단체우승을, 金秀鳳(21기)동문이 개인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에 李勇雨(22기)동문이 선정됐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체 준우승 : 21기, 3위 : 26기. △개인 준우승 : 梁在學(6기), 3위 : 玄仁周(14기)동문.

독어교육과

「동창회 소식지」 가을에 새단장

독어교육과동창회(회장 金學泉)는 최근 양재동 소재 「오대산산채」 식당에서 金明坤(76년卒)부회장, 李承龍(86년卒)총무, 河光彦(64년卒)·柳賢順(71년卒)·柳根粲(75년卒)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1년에 한번 발간되는 주소록에만 삽입되던 동문 소식지를 더욱 알차게 꾸미기로 결정했다. 특히 동문 기고, 신간 소개, 해외 동문들의 메시지 등을 추가해 별도로 1년에 1회 이상 제작 배포하기로 하고, 오는 가을에 새로 단장한 소식지를 선보이기로 했다.

또한 소식지 발간에 들어가는 비용과 동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동문들의 회비납부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장소 섭외 및 기획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만평

李 元 馥

우리도 4강 진출!

가정대학

맥주·김치 공장 견학

가정대학동창회(회장 李義淑)는 지난 7월 6일 서초동 「삼정」 식당에서 2002년 제2차 기별간사회의를 가졌다.

이날 새로 선임된 權薰貞(82년卒·모교 교수)교내 총무, 吳明花(82년卒)교외 총무, 沈錫田(82년卒)회계 총무와 기별간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신임 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3차 간사회의는 오는 10월 5일 갖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29일 친목 단합을 위해 두산 OB맥주 공장과 종가집 김치 공장을 견학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두산중앙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任貞彬(61년卒)부회장의 부군 소개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직접 김치를 담아 가져가는 이벤트를 펼쳐 참석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고경영자과정

李振洙동문 초청 강연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7월 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9회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특별히 세계적인 폐암권위자인 국립암센터 李振洙(74년 醫大卒)병원장이 참석해 「새로운 암 치료문화의 정착-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영어교육과

올해 안에 동문 주소록 발간 예정

영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聖浩)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모교 李孟成(53년卒)명예교수, 金鎭完(80년卒)학과장, 金錫九(50년卒)·朴 容(63년卒)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 및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1부 관악산 등반에 이어 2부 총회에서는 신년하례회 결과보고 및 새로 부임한 학과 교수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2002년 사업계획을 통해 매번 발간이 늦춰졌던 동문 주소록에 대한 사항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하고, 동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학과

10월 1일 호암생활관서 총회 개최

미학과동창회(회장 鄭明洙)는 지난 7월 9일 여의도 소재 미원빌딩에서 회장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생활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소록과 소식지를 새로 정비해서 배포하기로 했다.

또 11월 3일 兪弘濬(80년 人文大卒·「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동문의 안내로 충북 보은을 중심으로 「중원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고적답사 여행을 가기로 협의했다.

특히 모교 발전과 후학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故 金正祿교수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작품과 유물을 수집, 모교 박물관에 기증하는 행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대 八三會

韓英國회장 연임·李茂學총무 선임

단기 4283년에 입학한 八三동기회(회장 韓英國)는 최근 인사동 「선천」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韓회장(사진)을 재추대했으며, 朴贊弘총무 후임으로 李茂學동문이 선임됐다.

또 골프동호회 회장에 閔庚宰동문, 총무에 李鍾烈동문을 선임하고, 수원CC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총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전국의 산을 등반하며 돈독한 우의를 다져온 산악회(회장 鄭然德) 모임에 대한 최근 근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ROTC동문회

골프대회서 金漢錫동문 우승차지

ROTC동문회(회장 洪宗浩)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이포CC에서 金聖中(65년 文理大卒)·梁常弘(66년 農大卒)·金漢錫(83년 工大卒)·成憲慶(84년 農大卒)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金漢錫동문이 11언더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으며, 니어리스트에 柳成雲(76년 工大卒)동문, 롱게스트에 金鍾烈(72년 工大卒)동문이 각각 선정됐다. 또 崔海元(74년 農大卒)동문이 타이틀리스트를 수상했다.

한편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승과 타이틀리스트는 한해에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회칙을 변경했다. 〈表〉

동정

수 상

▲朴泰源(49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지난 7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성곡학술문화재단이 제정한 제17회 성곡학술문화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오는 9월 5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미술부문)을 수상한다.

▲蘇光熙(5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명예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 대강당에서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수상한다.

▲盧賢模(61년 師大卒·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 대강당에서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한다.

▲李在淑(63년 音大卒·모교 국악과 교수)=오는 9월 5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음악부문)을 수상한다.

▲金武鉉(65년 工大卒·진아건축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지난 7월 22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2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을 받음.

▲盧承卓(66년 工大卒·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 대강당에서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한다.

▲金芝河(66년 文理大卒·명지대 석좌교수)=오는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7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한다.

▲鄭翼株(72년 工大卒·일산 부사장)=지난 7월 5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여하는 제26회 한국 경영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철탑 산업훈장을 받음.

▲李用熙(77년 自然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 대강당에서 제47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한다.

▲朴京淳(81년 美大卒·국민대 교수)=지난 7월 4일 미술전문지 월간 「미술시대」가 제정한 제13회 한국미술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됨.

▲崔惠實(84년 師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7월 10일 문학사상사가 주관한 제13회 김환태 평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朱 鍵(97년 醫大卒·모교 신경과학교실 전공의)=지난 7월 5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청년 슈바이처상 시상식에서 전공의 학술상을 받음.

이동·선임

▲黃秉泰(58년 商大卒·前주중대사)=지난 6월 25일 경산대 제4대 총장에 선임됨.

▲李東熙(59년 文理大卒·前서울산업대 총장)=지난 7월 8일 프라자호텔에서 한양로타리 제47대 회장에 취임함.

▲金基容(60년 醫大卒·인제대학장)=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2002년 AO학회(골절내고정연구학회) 이사회에서 동양인 최초로 명예학술이사에 선임됨.

▲康容植(63년 法大卒·前국회의원)=지난 7월 11일 국회사무총장에 임명됨.

▲鄭鎭龍(65년 法大卒·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7월 12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임명됨.

▲權旭鉉(66년 工大卒·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7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자동제어연맹(IFAC) 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에 선출됨.

▲黃鎭浩(66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5일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錫友(67년 法大卒·前통일부 차관)=지난 7월 11일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임명됨.

▲禹義濟(67년 商大卒·前외환은행 부행장)=지난 7월 2일 하이닉스반도체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됨.

▲李聲九(67년 商大卒·서울시의회 의원)=지난 7월 9일 제6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선출됨.

▲朴性洙(68년 師大卒·前전주대 총장)=지난 8월 1일자로 명지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함.

▲金永哲(69년 農大卒·前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지난 7월 22일 한국전력 중부발전(주) 사장에 내정됨.

▲金一燮(69년 商大卒·이화여대 교수·冠岳會 理事)=지난 7월 23일 이화여대 경영부총장에 임명됨.

▲成光元(70년 師大卒·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지난 7월 2일 법제처 차장에 임명됨.

▲安載憲(71년 文理大卒·행자부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장)=지난 7월 8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에 내정됨.

▲許雲那(71년 文理大卒·국회의원)=지난 7월 2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IT의원연맹(IPAIT)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趙東成(71년 商大卒·모교 경영대학장)=지난 7월 1일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국제경영학회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종신명예직인 펠로(Fellow)로 추대됨.

▲朴鍾萬(73년 文理大卒·동양시멘트 상무)=지난 7월 22일 동양레저 대표이사 전무에 선임됨.

▲金相喜(73년 法大卒·서울고검 차장검사)=지난 7월 9일 제주지검장에 임명됨.

▲朴純一(73년 商大卒·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지난 7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5대 원장에 취임함.

▲具滋鎬(73년 新大院卒·前서울예술단 이사장)=지난 7월 23일 세종문화회관 2기 이사장에 선임됨.

▲張錫孝(74년 農大卒·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지난 7월 6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 임명됨.

▲金炳基(74년 文理大卒·재정경제부 국고국장)=지난 7월 23일 대통령 정책비서관에 임명됨.

▲元世勳(74년 法大卒·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지난 7월 6일 서울시 기획예산실장에 임명됨.

▲林承寬(74년 法大卒·부산고검 차장검사)=지난 7월 9일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임명됨.

▲辛東奎(74년 商大卒·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지난 7월 20일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에 내정됨.

▲南贊淳(75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지난 7월 22일 동아일보 심의연구실장에 선임됨.

▲朴南勳(75년 文理大卒·대통령 정책비서관)=지난 7월 23일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에 임명됨.

▲金英薰(75년 法大卒·대구도시가스 회장)=지난 7월 10일 창업투자회사인 바이넥스트 하이테크 대표이사 회장직을 겸임함.

▲丁憙源(75년 醫大卒·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지난 6월 29일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뇌종양학회 제12차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함.

▲李琇恒(77년 人文大卒·동아일보 월드컵대책본부 사무국장)=지난 7월 22일 동아일보 심의연구실 심의팀장 겸 연구팀장에 선임됨.

▲金奉建(78년 工大卒·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지난 7월 8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에 임명됨.

▲徐永昊(80년 法大卒·관악경찰서장)=지난 7월 15일 경찰청 정보5과장으로 전보됨.

▲鄭斗彦(80년 社會大卒·한나라당 부대변인)=지난 7월 1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에 취임함.

▲林彩靑(80년 法大卒·동아일보 정치부장)=지난 7월 22일 동아일보 논설위원에 선임됨.

▲沈揆先(80년 師大卒·동아일보 도쿄특파원)=지난 7월 22일 동아일보 편집국 정치부장에 선임됨.

▲張東周(81년 大學院卒·한국기술투자 기획관리본부장)=지난 7월 8일 한국기술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崔球植(85년 社會大卒·前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지난 7월 10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에 내정됨.

▲金熙集(85년 經營大卒·액센츄어 서울사무소 부사장)=지난 7월 9일 액센츄어 동북아시아 자원산업분야 총괄대표에 선임됨.

▲趙娟熙(86년 音大卒·前경희대 강사·피아니스트)=최근 미국 University of Nevada at Reno (UNR) 음대 피아노과 교수(Lecturer)로 초빙돼 가을학기부터 2004년 봄학기까지 강의한다.

▲兪成鎔(88년 社會大卒)=지난 7월 22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 건설교통정책과장에 임명됨.

▲李丞憲(96년 音大卒·피아니스트·위스콘신대 박사과정)=최근 일리노이주 소재 밀리컨 유니버시티 부교수로 부임함.

편집주간석

서울大 人名錄 발간에 부쳐

「서울大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동창회 제19대 집행부가 지난 3월 출범했습니다.

「자신에는 엄격하고 타인에는 관용을」이라는 도덕적 원칙과 「정상화와 자율」이라는 모교의 개혁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제23대 서울대 총장으로 鄭雲燦박사가 얼마 전 취임했습니다.

즈음하여 RAW DATA기준으로 28만6천명의 서울대인을 한데로 묶은 「서울大 人名錄」이 마침내 발간되어 우편배송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大人은 이제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大의 인적자원을 명실상부하게 HUMAN NETWORK化 했습니다.

도덕적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가사회에 무한봉사를 실천하는 서울大人으로 거듭나고, 다시 일어서는 서울大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元東赫(16기 AMP·오일코퍼레이션 대표)=지난 7월 1일 국제로타리 3640지구 총재에 취임함.

▲李鈞範(16기 AMP·前전남도지사)=지난 7월 10일 전남 나주 동신대 제4대 총장에 선임됨.

▲金勝猷(19기 AMP·하나은행장)=최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USC(남가주대) 한국총동창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嚴宗鎰(22기 AMP·前건영 사장)=지난 7월 15일 새천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振塋(43기 AMP·비비안 전무)=지난 6월 28일 (주)비비안 대표이사에 선임됨.

▲趙富英(12기 ACAD·국회의원)=지난 7월 8일 제16대 국회 부의장에 선출됨.

▲朴寬用(18기 ACAD·국회의원)=지난 7월 8일 제16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에 선출됨.

▲金承珪(7기 SGS·서울시 환경관리실장)=지난 7월 6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임명됨.

행사·출간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 백병원 이사장·本會 顧問)=지난 7월 20일 롯데호텔에서 「백병원 70년과 한국 현대의학의 발전」을 주제로 백병원 창립 70주년 학술대회를 가짐.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충북협회장·本會會長)=지난 7월 13일 세종호텔에서 충북협회 정기총회와 충북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축하모임을 가짐.

▲梁巨煥(57년 工大卒·사단법인 ITS Korea부회장)=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COEX에서 제5차 아시아·태평양 ITS(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서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

▲金鎭炫(58년 文理大卒·동해연구회장·本會副會長)=지난 7월 24~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 과학원 극동태평양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제8회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田秀一(62년 法大卒·광운대 교수·한국부패학회장)=지난 7월 12일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권력형 비리와 윤리문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함.

▲韓昇洙(62년 醫大卒·한일병원 이사)=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KEDO병원 개원식에 참석했으며, 직원 격려차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방문함.

▲權丙鉉(63년 法大卒·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롯데호텔과 홍천 대명콘도에서 제3회 「세계 한인회장 대회」를 개최함.

▲金亨圭(64년 音大卒·한양대 교수·한국피아노학회장)=지난 6월 20~21일 충남 천안시 이원문화원에서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명예교수인 한스 레이그라프 교수를 초청, 제12회 피아노 심포지엄을 개최함.

▲崔圭鶴(65년 行大院卒·한국소비자보호원장)=지난 7월 24일 테오도르 발렌틴 퍼케리어 루마니아 경쟁위원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양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崔仁基(66년 法大卒·前행정자치부 장관·법무법인 세종 고문)=지난 7월 23일 용인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민선3기 신임 시장, 군수 대상 지방자치연찬회에서 「한국지방자치의 과제와 방향, 그리고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함.

▲李炳勳(66년 醫大卒·소아과의원장·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자문위원)=지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협회 제85차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함.

▲李但悅(67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지난 8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음대 강당에서 독창회를 열고 이예림(01년 音大卒)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등의 가곡과 한국가곡을 선보임.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업경제학회장)=지난 7월 11~12일 강원도 속초 농협수련원 설악관에서 「세계화시대 한국농업의 진로」라는 주제로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함.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에 동문 6명 선출

대한민국 학술원(회장 李鎬汪·54년 醫大卒)은 지난 7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車河淳(56년 文理大卒·서강대 명예교수), 金容稷(58년 文理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金璟東(59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權肅一(58년 文理大卒·모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金容九(61년 文理大卒·모교 외교학과 교수), 朴相大(60년 文理大卒·모교 생명과학부 교수)동문을 신임 회원으로 선출했다.

또 李회장과 金泰吉(4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명예교수)부회장을 제29대 회장단으로 재선임했다.

한편 인문사회과학부 회장에 金雲泰(48년 文理大卒·모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자연과학부 회장에 朱彰淳(47년 醫大專門部卒·고려대 명예교수)동문이 연임됐다. 〈燮〉

▲權五得(68년 文理大卒·景山복지재단 회장)=지난 7월 10일 저소득가정 초·중학생 1백 21명에게 제2차 愛田장학금 2천만원을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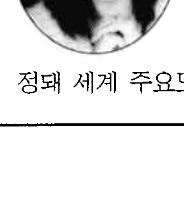
▲李鎭學(72년 醫大卒·모교 안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연구소장)=지난 6월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산업제품에 대한 안정성·기능성 평가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사장·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지난 7월 14일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열린 2002년 세계언론학대회(ICA) PR 프리컨퍼런스 워크숍에서 「한국PR산업의 현황과 전망」의 주제발표를 함.

▲宋翊鎬(82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최근 세계적인 출판사인 스프링거(Springer-Verlag)에서 「ADVANCED THEORY OF SIGNAL DETECTION」이라는 책을 펴냄.

▲李忠範(82년 法大卒·변호사·사단법인 정해복지 이사장)=지난 7월 6일 서초동 놀부집에서 한·베트남 수교 10주년을 기념해 재한 베트남 유학생을 초청, 한국외대·청운대 베트남어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한 베트남 유학생 모임을 가졌다.

▲金旻輝(84년 音大卒·보석디자이너)=지난 6월 11일 이태리 비첸차에서 열린 Gold Virtuosi 2002에 Finalist로 선정돼 세계 주요도시에 1년간 작품을 전시할 예정임.



▲徐敎一(84년 醫大卒·순천향대 총장)=지난 7월 23일 순천향대 향설기념중앙도서관에서 고교생 2백여 명이 참가한 「이충무공 전승지 해상·국토순례 행사」의 발대식을 가짐.

▲李恩淑(85년 美大卒·건국대 강사)=지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초대로 「사계」를 주제로한 작품전을 가졌으며, 과천 제비울미술관의 「우리들의 얼굴전」에 작품을 출품함.

▲朴昭映(96년 美大卒·대구예대 강사)=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관계와 소통 - 도심의 은빛물결」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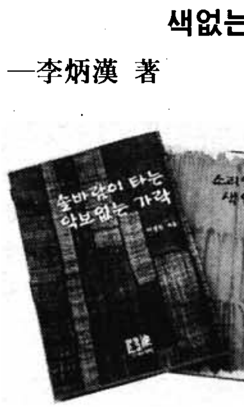
▲李 沁(32기 ACAD·한국주택신문 사장)=지난 7월 3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8회 「2002 주택문화상」 시상식을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솔바람이 타는 악보없는 가락/ 소리없는 시, 색없는 그림

—李炳漢 著



모교 중어중문학과 李炳漢(56년 文理大卒)명예교수가 일간신문에 1일 1제로 연재되었던 내용을 두권의 책으로 엮었다.

「솔바람이 타는 악보없는 가락」은 중국 고대 한시에 담겨 있는 뜻을 찾아내어 현대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나 상황에 대해 현대인들에게 유효적절한 지적을 제시하고 있다.

「소리없는 시, 색없는 그림」은 현대의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면의 현상들에 대한 문제점을 옛 선현들의 한시에 담겨 있는 그들의 정신사에서 찾고 있다.

〈도서출판 역락刊·값10,000원/값9,000원〉

公演

■金祐廷 첼로 독주회

—8월 26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金祐廷(93년 音大卒)동문이 독주회를 갖는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수석, 한국페스티발앙상블과 첼리스트 디아모르 단원으로 활동 중인 金동문은 이날 단치, 프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김영준(95년 農生大卒)군·박장희 양=8월 15일 13시.

*양영석(00년 社會大卒)군·김희주 양=8월 15일 14시 30분.

*최철희(00년 工大卒)군·이정민 양=8월 17일 13시.

*김석기(95년 醫大卒)군·정현명 양= 8월 17일 14시 30분.

*이민수(99년 法大卒)군·한혜영 양=8월 18일 14시 30분.

*최강렬(97년 行大院卒)군·박선희 양=9월 14일 14시.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 2002년 5월 3일~5월 7일·一般 : 2002년 4월 29일~5월 2일〉

회 장 단

▲부회장 李海元=100만원
▲부회장 鄭宗澤=50만원
▲부회장 孔大植=100만원
▲부회장 郭永駜=100만원
▲부회장 安秉勳=100만원
▲부회장 吳 明=100만원
▲부회장 玄在賢=100만원
▲부회장 洪錫炫=100만원
▲부회장 鄭忠始=100만원

관 악 회

▲이사 鄭晳圭=30만원
▲이사 安聖哲=30만원
▲이사 李龍二=30만원
▲이사 朴明潤=30만원

상임이사

▲成百詮 공대동창회장=20만원
▲梁源植 치대동창회장=20만원
▲李成九 교대원동창회장=20만원
▲朴英淑 CHCN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금종해(80년 自然大卒)=20만원
▲김미애(82년 看護大卒)=20만원
▲김종찬(71년 工大卒)=20만원
▲김혜선(86년 農大卒)=20만원
▲나덕주(71년 工大卒)=20만원
▲양배덕(61년 工大卒)=20만원
▲유무성(66년 商大卒)=20만원
▲유부열(74년 農大卒)=20만원
▲한명희(64년 音大卒)=20만원
▲허 일(25기 AIP)=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문상원(76) ▲배영수(76)

◇社會科學大學

▲김충환(77) ▲조현석(77)

◇家政大學

▲박경희(77) ▲박명희(75) ▲이보숙(80)

◇看護大學

▲김복순(55) ▲오세영(70) ▲이금라(74) ▲이춘자(57) ▲하양숙(71)

◇經營大學

▲고정석(80) ▲김상범(82) ▲김태오(77) ▲신용삼(77) ▲윤형모(77) ▲임태희(80)

◇工科大學

▲강광언(65) ▲고대종(68) ▲고영회(81) ▲공병채(70) ▲곽순태(70) ▲구창용(64) ▲김경석(70) ▲김덕영(47) ▲김도훈(66) ▲김동철(59) ▲김명근(57) ▲김명년(57) ▲김석기(64) ▲김선홍(55) ▲김원배(59) ▲김윤규(69) ▲김재화(56) ▲김정만(65) ▲김정옥(60) ▲김정철(56) ▲김창석(69) ▲김철수(74) ▲김태성(70) ▲김호진(77) ▲박문화(72) ▲박창규(74) ▲박창선(65) ▲배봉휘(67) ▲백형배(53) ▲설원길(51) ▲송태영(69) ▲신국범(56) ▲신동식(55) ▲안기원(70) ▲안재휴(56) ▲양승택(61) ▲양정웅(68) ▲염사연(71) ▲오병태(58) ▲오수익(68) ▲우영하(72) ▲우인성(62) ▲유근택(75) ▲유성삼(65) ▲유우근(77) ▲윤종용(66) ▲윤홍구(70) ▲이계완(50) ▲이봉규(64) ▲이상천(74) ▲이상호(70) ▲이성환(70) ▲이우윤(62) ▲이정규(68) ▲이종현(51) ▲이종호(65) ▲이주범(56) ▲이철우(62) ▲이태섭(62) ▲이호일(68) ▲인주선(63) ▲임형규(76) ▲전계묵(61) ▲전긍렬(48) ▲정영삼(74) ▲정태헌(77) ▲제해현(69) ▲조형제(55) ▲채방은(70) ▲최 연(72) ▲최경숙(78) ▲최종명(61) ▲최창영(69) ▲편도권(58) ▲표삼수(74) ▲하상달(74) ▲하영무(73) ▲한수은(59) ▲홍호식(73) ▲황상일(54)

◇農業生命科學大學

▲곽영철(65) ▲김동태(66) ▲나찬희(77) ▲박영인(62) ▲배종선(71) ▲심재덕(63) ▲엄기덕(49) ▲원청언(69) ▲유위종(80) ▲윤대섭(55) ▲윤여창(57) ▲이규승(71) ▲이윤호(72) ▲정창현(64) ▲채수균(58) ▲최원규(72) ▲최정화(68) ▲최찬식(62) ▲한정남(69) ▲홍행홍(71)

◇文理科大學

▲구범모(56) ▲권병두(72) ▲김대기(69) ▲김두희(52) ▲김상진(49) ▲김상호(62) ▲남중구(64) ▲박범진(64) ▲박종규(61) ▲박청일(61) ▲배기성(68) ▲서재만(63) ▲신학용(75) ▲오길록(68) ▲윤재천(72) ▲윤홍근(67) ▲이민섭(65) ▲이상옥(57) ▲이성덕(60) ▲이재익(64) ▲이철배(62) ▲이해남(70) ▲임의신(66) ▲전상호(56) ▲전용성(50) ▲정낙찬(73) ▲정소성(69) ▲정연국(68) ▲진정일(64) ▲최각규(57) ▲하영준(60) ▲한남규(70) ▲허남성(74) ▲황수익(64)

◇美術大學

▲박노수(52) ▲박항률(74) ▲백병기(57) ▲이종상(63) ▲홍나희(67)

◇法科大學

▲가재환(63) ▲강 용(65) ▲강경식(61) ▲강기원(64) ▲강대신(67) ▲강용식(63) ▲강우영(51) ▲고문승(63) ▲고영한(78) ▲고현석(66) ▲곽노준(78) ▲곽정출(63) ▲권 성(66) ▲권재진(76) ▲김경림(64) ▲김덕주(56) ▲김병윤(72) ▲김성곤(62) ▲김세권(56) ▲김승호(66) ▲김승희(79) ▲김영삼(65) ▲김용구(71) ▲김용철(50) ▲김윤옥(71) ▲김종구(63) ▲김종국(69) ▲김종철(60) ▲김준규(79) ▲김진만(64) ▲김진억(60) ▲김찬진(63) ▲김태정(64) ▲김태현(50) ▲김학용(60) ▲노승행(63) ▲박 만(74) ▲박영수(56) ▲박원진(55) ▲박윤흔(61) ▲박정규(61) ▲박종덕(61) ▲박천식(55) ▲박효성(65) ▲배억만(58) ▲배재욱(68) ▲변학남(56) ▲부구욱(74) ▲서승완(64) ▲서승일(71) ▲서원태(72) ▲서정신(62) ▲서희석(75) ▲송상현(63) ▲신명균(66) ▲신장순(51) ▲신창호(45) ▲신호양(63) ▲신희택(75) ▲안동일(63) ▲안문태(64) ▲양 영(66) ▲여상조(74) ▲오영권(73) ▲오지철(73) ▲오태환(57) ▲원우현(65) ▲유원규(75) ▲유정호(66) ▲유흥수(65) ▲윤원석(63) ▲이경호(65) ▲이국주(68) ▲이수일(70) ▲이용훈(63) ▲이우영(64) ▲이재웅(65) ▲이재화(58) ▲이호균(66) ▲임대규(78) ▲임두빈(57) ▲임종률(67) ▲장용국(75) ▲장해창(78) ▲전상욱(75) ▲정경용(69) ▲정문화(65) ▲정우모(60) ▲정은구(64) ▲정재형(63) ▲정지형(62) ▲정희준(61) ▲조관행(79) ▲조대연(73) ▲조석제(58) ▲조용구(79) ▲조용국(68) ▲조충환(64) ▲조형일(73) ▲진병건(75) ▲차정일(65) ▲채태병(67) ▲천현주(71) ▲최기선(73) ▲최기정(64) ▲최종립(60) ▲최주곤(50) ▲하일부(61) ▲한부환(70) ▲한일성(66) ▲현경대(64) ▲홍경용(49) ▲홍석조(75) ▲황규언(65)

◇師範大學

▲구창모(55) ▲김장화(58) ▲문병학(64) ▲민경현(57) ▲박영배(72) ▲박종국(71) ▲박종세(59) ▲서범석(75) ▲신성택(62) ▲신인식(78) ▲유자효(75) ▲이숙영(63) ▲이제룡(64) ▲임공희(68) ▲최기숙(69) ▲최용준(65) ▲한기상(68) ▲황철수(51)

◇商科大學

▲강성원(70) ▲고일성(58) ▲공정곤(59) ▲구자홍(72) ▲권희택(60) ▲김기현(67) ▲김덕명(66) ▲김사철(61) ▲김석규(57) ▲김완기(50) ▲김유일(57) ▲김종대(41) ▲김종덕(59) ▲김종석(63) ▲김종욱(70) ▲김종원(61) ▲김종창(61) ▲김태범(65) ▲김현배(57) ▲김호식(73) ▲맹진성(59) ▲명동근(52) ▲박경상(65) ▲박영우(64) ▲박영조(65) ▲박정호(50) ▲박중대(57) ▲서 행(64) ▲서덕규(58) ▲서재인(70) ▲소진관(74) ▲손기창(62) ▲손기혁(64) ▲송기태(56) ▲신동혁(63) ▲신승철(63) ▲신찬수(61) ▲심 훈(66) ▲안재규(68) ▲안재천(61) ▲안태호(53) ▲오증근(71) ▲우순구(57) ▲우찬목(59) ▲유영일(57) ▲유진무(66) ▲윤종현(46) ▲이광수(54) ▲이광표(65) ▲이구수(63) ▲이규성(63) ▲이균재(48) ▲이동원(55) ▲이상근(57) ▲이영택(64) ▲이용휘(61) ▲이인원(68) ▲이주찬(59) ▲이하룡(73) ▲이항철(58) ▲장만화(61) ▲전문준(71) ▲전병창(68) ▲전용수(66) ▲전창수(61) ▲정인직(64) ▲정정숙(53) ▲정태욱(69) ▲조병해(57) ▲지상진(57) ▲지창수(59) ▲최선욱(75) ▲홍성철(48) ▲홍용찬(72) ▲황영기(75)

◇獸醫科大學

▲김상돈(47) ▲김성수(68) ▲김찬규(67) ▲이기주(67) ▲이완우(71) ▲조사선(72)

◇藥學大學

▲김인수(58) ▲박승규(63) ▲이광수(68) ▲임익근(76) ▲주상섭(69) ▲하만화(65)

◇音樂大學

▲전신주(71)

◇醫科大學

▲강조웅(68) ▲김상우(68) ▲김종희(56) ▲김주현(71) ▲김호균(70) ▲노관택(55) ▲맹국영(74) ▲문효중(52) ▲박남진(79) ▲박성회(75) ▲박영하(50) ▲박용현(68) ▲박재형(72) ▲박찬웅(60) ▲박효일(64) ▲백상호(59) ▲서유헌(73) ▲송익훈(54) ▲신면우(50) ▲신창재(78) ▲심영보(61) ▲오경균(73) ▲오병희(77) ▲윤해근(76) ▲이기상(79) ▲이동렬(49) ▲이명철(73) ▲이수철(78) ▲이중근(74) ▲임한종(57) ▲장돈식(62) ▲장봉린(63) ▲장윤석(55) ▲전하용(59) ▲조성수(76) ▲지삼봉(61) ▲최성배(61) ▲추광철(66) ▲한기호(61) ▲한진석(78) ▲황정운(60) ▲황효섭(64)

◇齒科大學

▲권오양(80) ▲김각균(78) ▲김관식(75) ▲김영구(71) ▲김유진(74) ▲김종철(77) ▲김현풍(66) ▲박행운(60) ▲백기석(70) ▲백동준(62) ▲백유선(75) ▲송희춘(61) ▲유병도(60) ▲유영세(66) ▲유형식(65) ▲이석우(77) ▲이수구(72) ▲이승우(61) ▲이승환(66) ▲이준섭(58) ▲이희주(73) ▲임문식(75) ▲임철중(67) ▲전태수(60) ▲정경수(50) ▲정상주(62) ▲정재영(74) ▲한응렬(65) ▲홍경택(71) ▲홍삼표(78)

◇大學院

▲홍성태(81)

◇經營大學院

▲배동훈(70) ▲신인철(68) ▲원영종(75) ▲이윤수(68) ▲이정부(71) ▲장몽인(67) ▲조정희(71)

◇保健大學院

▲손경애(76) ▲윤용길(70)

◇司法大學院

▲김영준(70) ▲김용환(68) ▲오복동(64) ▲최영철(65)

◇新聞大學院

▲곽찬호(71) ▲김우룡(73) ▲안성균(73)

◇行政大學院

▲김번웅(70) ▲김세옥(83) ▲심기철(64) ▲이치업(61) ▲전주식(64) ▲정경모(67) ▲차유배(61) ▲최규학(65)

◇環境大學院

▲강은순(74) ▲오무근(75) ▲이평재(75)

일 반

◇人文大學

▲강인식(84) ▲김대경(82) ▲김명환(81) ▲김종주(79) ▲김치하(90) ▲김향숙(86) ▲류 경(00) ▲윤태근(92) ▲이세영(77) ▲이우철(95) ▲이일환(77) ▲이정호(76) ▲이종경(79) ▲이혜원(87) ▲정두영(88) ▲정말순(84) ▲정혜경(87) ▲조용균(79) ▲조원희(94) ▲황은경(85)

◇社會科學大學

▲강정원(86) ▲고동록(89) ▲고동현(95) ▲구성재(84) ▲권승일(77) ▲권용신(94) ▲권태훈(91) ▲기영석(88) ▲김광순(93) ▲김기수(82) ▲김동수(81) ▲김성묵(87) ▲김신근(94) ▲김유환(87) ▲김인수(88) ▲김재호(86) ▲김지민(85) ▲김철호(95) ▲김한국(97) ▲나윤호(89) ▲노택선(83) ▲박 준(98) ▲박종희(97) ▲배상만(89) ▲변동희(77) ▲부윤경(83) ▲석일권(00) ▲손광락(78) ▲신세균(79) ▲안재완(90) ▲양세련(97) ▲양제형(80) ▲염주영(81) ▲오규택(81) ▲원진영(88) ▲유윤균(89) ▲유재한(77) ▲이규영(98) ▲이동섭(89) ▲이영훈(83) ▲이용걸(80) ▲이철휘(76) ▲이홍엽(95) ▲장경영(98) ▲장원영(81) ▲정간채(91) ▲정병욱(85) ▲정성윤(92) ▲정영록(81) ▲정원호(79) ▲정태영(81) ▲조성효(85) ▲조영우(80) ▲주영진(85) ▲천민근(97) ▲최병갑(81) ▲최성호(96) ▲최용일(78) ▲한정욱(97) ▲허동호(89)

◇自然科學大學

▲강대승(88) ▲고방원(99) ▲권재명(94) ▲김건우(89) ▲김상보(86) ▲김용백(89) ▲김정기(87) ▲김주영(87) ▲김진영(85) ▲남창훈(92) ▲노동진(94) ▲서지영(96) ▲소상완(92) ▲오종훈(81) ▲유재욱(88) ▲이순열(83) ▲이인숙(77) ▲이지희(88) ▲이형구(93) ▲임기수(77) ▲정연준(94) ▲정진욱(94) ▲하남규(85) ▲한창우(79) ▲허원회(86) ▲현윤정(94) ▲황치옥(88)

◇家政大學

▲김미정(88) ▲김영애(72) ▲김윤숙(80) ▲김진호(75) ▲김혜선(63) ▲류국영(88) ▲박혜선(76) ▲오정우(98) ▲이미세(76) ▲이미자(85) ▲이용호(82) ▲이위경(76) ▲이형숙(73) ▲이화숙(61) ▲조정애(61) ▲한영숙(60)

◇看護大學

▲구혜정(79) ▲김 숙(93) ▲김화순(74) ▲남혜경(83) ▲민복희(58) ▲박상련(72) ▲박선규(78) ▲박정숙(80) ▲신연희(88) ▲심희임(60) ▲이성은(77) ▲이은숙(84) ▲이지애(86) ▲이호숙(60) ▲장명숙(68) ▲정 한(79) ▲정숙자(64)

◇經營大學

▲고광호(89) ▲김범석(93) ▲김용남(78) ▲남중수(79) ▲박희수(89) ▲손병규(81) ▲송호찬(82) ▲유승권(91) ▲윤 영(79) ▲이광재(88) ▲조현탁(88) ▲최기상(94) ▲최석원(77) ▲최주현(79) ▲하태주(91) ▲하태형(82) ▲한상설(76) ▲한선구(85) ▲홍전기(90)

◇工科大學

▲강근배(74) ▲강상균(96) ▲강수민(98) ▲강승호(88) ▲강주복(56) ▲강희일(82) ▲경상현(56) ▲고 건(74) ▲고광렬(55) ▲고영범(80) ▲고윤석(68) ▲고인준(72) ▲권순철(78) ▲권오웅(78) ▲김 윤(76) ▲김경백(93) ▲김광선(72) ▲김광현(68) ▲김구권(57) ▲김근배(68) ▲김남길(65) ▲김대호(72) ▲김동수(67) ▲김동원(48) ▲김병연(72) ▲김신태(67) ▲김영국(56) ▲김영균(72) ▲김영대(65) ▲김영인(82) ▲김영춘(65) ▲김영헌(79) ▲김영환(62) ▲김영환(90) ▲김영환(94) ▲김용관(99) ▲김원수(65) ▲김윤기(58) ▲김윤수(79) ▲김인환(73) ▲김일수(87) ▲김정덕(76) ▲김정래(01) ▲김정호(72) ▲김종석(62) ▲김종채(61) ▲김종호(76) ▲김종흡(49) ▲김주현(64) ▲김중환(87) ▲김지환(56) ▲김지환(82) ▲김창선(64) ▲김창홍(92) ▲김철순(57) ▲김택중(88) ▲김택환(51) ▲김학규(76) ▲김학세(69) ▲김한영(97) ▲김해웅(76) ▲김화곤(77) ▲김효섭(81) ▲나정웅(63) ▲남공희(57) ▲노웅래(89) ▲류인재(81) ▲문종규(64) ▲문효식(97) ▲문흥식(92) ▲민동호(75) ▲민병승(64) ▲민현석(88) ▲박광덕(54) ▲박무근(64) ▲박병하(80) ▲박삼진(77) ▲박상수(63) ▲박성규(75) ▲박승균(67) ▲박승균(84) ▲박영준(84) ▲박용기(75) ▲박인석(67) ▲박인수(85) ▲박재성(98) ▲박종규(92) ▲박종률(80) ▲박홍규(61) ▲박화춘(80) ▲박효정(74) ▲배기은(57) ▲백동현(90) ▲백성기(71) ▲백우현(71) ▲변재용(81) ▲서경석(56) ▲서석철(58) ▲서승일(84)

▲서장렬(87) ▲서정만(68) ▲석영대(60)
▲석효경(73) ▲선우중호(63) ▲성현택(99)
▲소재천(87) ▲손태원(76) ▲손효원(75)
▲송경석(82) ▲송대호(72) ▲송영부(70)
▲송운덕(78) ▲송재규(59) ▲송창록(91)
▲송현석(66) ▲송효준(97) ▲신언학(74)
▲신종웅(76) ▲신치재(63) ▲신현식(54)
▲심재관(90) ▲안동렬(45) ▲안홍삼(70)
▲양문규(48) ▲엄태석(69) ▲여민종(86)
▲오경식(79) ▲오장수(78) ▲오창석(73)
▲오창진(96) ▲원찬희(98) ▲유경희(69)
▲유영면(72) ▲유완영(66) ▲유화영(92)
▲윤남진(57) ▲윤병주(67) ▲윤석룡(54)
▲윤조덕(76) ▲윤종철(89) ▲윤철수(78)
▲윤한상(53) ▲이경섭(84) ▲이규재(47)
▲이덕기(43) ▲이동철(82) ▲이방원(93)
▲이범철(67) ▲이병길(90) ▲이병남(69)
▲이봉렬(58) ▲이상만(74) ▲이상우(81)
▲이상헌(95) ▲이성배(82) ▲이성주(87)
▲이세희(58) ▲이승헌(95) ▲이승후(91)
▲이영일(75) ▲이영조(76) ▲이영희(76)
▲이요셉(98) ▲이용철(89) ▲이용호(92)
▲이윤환(56) ▲이익용(61) ▲이인혁(98)
▲이임택(65) ▲이재섭(74) ▲이재성(46)
▲이재욱(65) ▲이재일(70) ▲이재철(83)
▲이종대(87) ▲이종무(91) ▲이중헌(88)
▲이중호(48) ▲이찬주(55) ▲이청원(67)
▲이충화(78) ▲이형은(78) ▲이호경(80)
▲이황원(76) ▲이희찬(83) ▲임석현(95)
▲장석권(79) ▲장영배(76) ▲장재언(88)
▲장춘학(90) ▲장현성(97) ▲정 발(70)
▲정대화(84) ▲정문범(65) ▲정상열(80)
▲정연휘(55) ▲정의봉(78) ▲정재근(78)
▲정준식(61) ▲정찬영(58) ▲정창현(65)
▲정치권(67) ▲정현균(87) ▲정현모(69)
▲정희덕(78) ▲조국영(96) ▲조규담(57)
▲조민호(98) ▲조복래(82) ▲조석제(64)
▲조순교(78) ▲조용훈(82) ▲조원상(84)
▲조의식(96) ▲조태훈(81) ▲주기만(68)
▲진명혁(49) ▲차용수(73) ▲차원갑(53)
▲차인환(70) ▲채경선(87) ▲채성수(89)
▲천성록(83) ▲최기철(79) ▲최병국(97)
▲최석경(91) ▲최성일(66) ▲최수명(78)
▲최은철(81) ▲최인암(57) ▲최창환(95)
▲최태희(89) ▲하영환(51) ▲한두옥(79)
▲한명의(51) ▲한민수(79) ▲한봉희(52)
▲허병구(42) ▲허수웅(65) ▲홍남종(95)
▲홍성범(60) ▲홍성영(90) ▲홍성일(58)
▲홍성훈(59) ▲홍순일(57) ▲홍용남(71)
▲홍진표(61) ▲황경선(70) ▲황인보(73)
▲황장연(90) ▲황희양(73)

◇農業生命科學大學

▲강광희(63) ▲계홍석(94) ▲고장원(59)
▲권명구(72) ▲김갑덕(50) ▲김경우(69)
▲김규식(75) ▲김규환(52) ▲김기렬(67)
▲김기수(61) ▲김대관(91) ▲김대환(85)
▲김동수(97) ▲김성자(67) ▲김완배(75)
▲김원훈(58) ▲김재인(66) ▲김진철(55)
▲김홍렬(54) ▲남용희(69) ▲노홍섭(58)
▲류관희(67) ▲문양수(87) ▲민영준(53)
▲박병흔(83) ▲박상홍(59) ▲박영선(61)
▲박장렬(57) ▲박주현(89) ▲박창용(59)
▲박홍준(89) ▲방석남(78) ▲배기식(58)
▲백주현(99) ▲성우경(57) ▲손현수(53)
▲송기언(60) ▲송승석(63) ▲신언곤(58)
▲신제성(65) ▲심의구(55) ▲양동섭(97)
▲양준식(89) ▲염익환(82) ▲오상훈(47)
▲오익환(39) ▲오현우(86) ▲유상호(97)
▲유재영(64) ▲이경용(57) ▲이만복(60)
▲이명희(71) ▲이상호(56) ▲이성묵(64)
▲이재성(66) ▲이종기(64) ▲이종만(80)
▲이종환(83) ▲이창우(49) ▲이해연(63)
▲이현수(73) ▲임인빈(53) ▲임장희(96)
▲장낙연(59) ▲장성구(77) ▲전기영(59)
▲정도섭(63) ▲정순오(78) ▲정연택(87)
▲정재혁(56) ▲정태수(89) ▲정현용(69)
▲조수경(76) ▲조준기(58) ▲최규홍(58)
▲최현섭(73) ▲태용문(86) ▲한춘연(56)
▲한판주(60) ▲한해룡(60) ▲홍석현(81)
▲황우익(58) ▲황인수(83)

◇文理科大學

▲강희영(53) ▲고영소(60) ▲구봉회(66)
▲구자영(72) ▲권혁방(72) ▲김경두(75)
▲김계란(56) ▲김구현(58) ▲김덕수(75)
▲김명건(70) ▲김문창(65) ▲김상균(72)
▲김순호(74) ▲김연숙(72) ▲김영수(68)
▲김영철(61) ▲김영철(70) ▲김용범(64)
▲김용석(75) ▲김용진(63) ▲김용호(73)
▲김원봉(52) ▲김장년(70) ▲김종환(65)
▲김치곤(57) ▲김형태(63) ▲나학진(57)
▲노무용(67) ▲도홍길(65) ▲박금자(70)
▲박상식(71) ▲박용호(53) ▲박재만(58)
▲박종철(66) ▲박창고(54) ▲박태원(50)
▲박혜란(69) ▲변종서(59) ▲서정욱(64)
▲송대성(73) ▲송병회(55) ▲송석훈(65)
▲송용진(72) ▲신충균(55) ▲안계춘(61)
▲안화영(54) ▲엄기홍(65) ▲엄병윤(64)
▲여무종(72) ▲오권태(62) ▲오근영(65)
▲우종택(58) ▲유기수(57) ▲유진당(58)
▲유희정(53) ▲윤종국(64) ▲윤화자(65)
▲이규증(59) ▲이근수(75) ▲이달형(58)
▲이대판(62) ▲이덕길(66) ▲이명구(47)
▲이석윤(50) ▲이승환(60) ▲이영수(68)
▲이재현(60) ▲이종록(47) ▲이주한(60)
▲이준덕(58) ▲이택순(75) ▲이해창(67)
▲이현순(60) ▲임선재(56) ▲임형택(66)
▲장영수(67) ▲전동성(72) ▲정 탄(70)
▲정만조(69) ▲정창기(64) ▲조 만(57)
▲조계찬(51) ▲지주선(58) ▲차주환(52)
▲채영수(72) ▲최봉석(73) ▲최상훈(75)
▲최흥천(58) ▲한동목(63) ▲한상복(70)
▲한석진(57) ▲한제근(71) ▲한철순(62)
▲홍성진(57) ▲홍승국(48) ▲홍영남(64)
▲황선필(64) ▲황정로(61)

◇美術大學

▲고문자(66) ▲김교식(53) ▲김병진(88)
▲김소선(67) ▲김연미(87) ▲김유선(84)
▲김재철(91) ▲김현영(99) ▲김혜원(80)
▲남용호(88) ▲박경희(62) ▲박광필(90)
▲박소영(77) ▲박요원(60) ▲백재은(94)
▲변진의(65) ▲송복희(78) ▲송윤회(58)
▲신용태(64) ▲신지희(87) ▲심문섭(65)
▲안기순(83) ▲우병탁(84) ▲유당주(67)
▲유영일(87) ▲윤옥진(68) ▲이금령(80)
▲이문숙(70) ▲이상은(90) ▲이승윤(97)
▲이은심(82) ▲이종수(63) ▲이준환(95)
▲장용주(83) ▲전진희(80) ▲정광호(64)
▲정종미(80) ▲정효진(56) ▲차정아(89)
▲최병상(61) ▲한주연(94) ▲홍순무(58)

◇法科大學

▲강신배(56) ▲강일원(82) ▲강종원(60)
▲경우근(71) ▲권영상(82) ▲김경종(77)
▲김남진(55) ▲김덕주(87) ▲김동국(86)
▲김영진(62) ▲김운용(85) ▲김윤범(90)
▲김익권(47) ▲김인중(61) ▲김주현(85)
▲김지욱(75) ▲김태규(49) ▲김태성(90)
▲문대탄(61) ▲민정기(47) ▲박광우(81)
▲박국경(62) ▲박승준(84) ▲박윤해(88)
▲박재태(85) ▲배달순(57) ▲백윤재(82)
▲백인기(56) ▲서상수(84) ▲서영태(63)
▲석성환(59) ▲손우창(00) ▲손익수(70)
▲손주찬(52) ▲송진원(63) ▲신 신(59)
▲신배식(81) ▲심창섭(77) ▲안평수(77)
▲양승규(60) ▲양영태(87) ▲양정석(61)
▲오세혁(86) ▲오인섭(89) ▲원윤묵(60)
▲유달선(66) ▲유준형(66) ▲윤복균(64)
▲윤상목(56) ▲윤신승(93) ▲윤희찬(98)
▲이관진(58) ▲이기석(80) ▲이동렬(72)
▲이상민(56) ▲이상준(70) ▲이상철(63)
▲이성준(68) ▲이성호(82) ▲이완규(86)
▲이재원(81) ▲이진우(56) ▲이희권(67)
▲임 경(82) ▲임완규(69) ▲장성환(74)
▲장행훈(58) ▲정남희(67) ▲정종현(66)
▲정지태(63) ▲조경래(55) ▲조석래(55)
▲조승형(57) ▲조지만(95) ▲조행숙(51)
▲천대승(56) ▲최거훈(80) ▲최경준(83)
▲최병무(63) ▲최영홍(76) ▲최종원(76)
▲태범식(55) ▲한근우(49) ▲한상술(64)
▲현순도(70) ▲홍기인(59) ▲황 철(66)
▲황성진(70) ▲황형모(75)

◇師範大學

▲강경석(87) ▲구본혁(64) ▲구영주(76)
▲구인환(54) ▲권경안(86) ▲김경호(55)
▲김기우(80) ▲김동일(87) ▲김미숙(75)
▲김상원(93) ▲김정홍(61) ▲김중호(66)
▲김지온(74) ▲김창철(65) ▲김철웅(70)
▲김혜원(59) ▲남한식(55) ▲노병룡(60)
▲민혜식(56) ▲박광채(89) ▲박균제(92)
▲박병래(54) ▲박지모(77) ▲박형준(94)
▲변영희(70) ▲서순종(62) ▲서태근(56)
▲서형래(76) ▲송복주(57) ▲신태우(62)
▲신하영(63) ▲심봉석(64) ▲심상범(64)
▲양영렬(75) ▲양창순(71) ▲오범호(97)
▲원필순(71) ▲유정숙(68) ▲윤재석(75)
▲윤주학(76) ▲이경숙(95) ▲이미숙(85)
▲이순권(66) ▲이승이(97) ▲이영복(75)
▲이용우(59) ▲이원교(57) ▲이인자(75)
▲이정태(74) ▲이정호(70) ▲이종연(67)
▲이종희(40) ▲이창호(75) ▲이현택(57)
▲이혜선(68) ▲임광수(72) ▲임부철(86)
▲전동수(62) ▲전신재(65) ▲정근화(70)
▲정만진(55) ▲정만훈(62) ▲정문용(76)
▲정상윤(78) ▲정신화(75) ▲정은호(63)
▲정지웅(62) ▲정회욱(85) ▲제옥례(35)
▲조양제(74) ▲조희식(58) ▲채미영(86)
▲최돈성(57) ▲추성구(52) ▲허 영(63)
▲홍철근(74) ▲황 주(89) ▲황승희(70)
▲황종근(80)

◇商科大學

▲강완기(74) ▲권영욱(58) ▲김길수(70)
▲김병호(61) ▲김선길(52) ▲김승환(71)
▲김영곤(55) ▲김이규(58) ▲김재헌(45)
▲김창순(61) ▲김한오(57) ▲노병태(68)
▲민은홍(62) ▲박 승(61) ▲박경석(57)
▲박수환(59) ▲박승규(55) ▲박인규(74)
▲박찬우(62) ▲박태일(66) ▲박해용(61)
▲박효민(71) ▲서영택(62) ▲서진석(64)
▲신문철(56) ▲심재강(70) ▲안영목(61)
▲안혜자(57) ▲오남호(61) ▲오정환(65)
▲우영호(75) ▲우일균(56) ▲유재홍(72)
▲이승구(65) ▲이영세(55) ▲이창숙(61)
▲이춘원(71) ▲이태호(42) ▲이헌출(72)
▲이희준(53) ▲장덕렬(75) ▲전용주(60)
▲전종환(55) ▲정경완(59) ▲정인승(54)
▲조은구(58) ▲조흡원(71) ▲최도성(74)
▲최용호(54) ▲최익재(72) ▲하지명(48)
▲하진수(39) ▲한정준(58) ▲한창곤(77)
▲현임종(60) ▲홍계화(70)

◇獸醫科大學

▲권순기(61) ▲김교형(65) ▲김영신(59)
▲김영진(83) ▲김용팔(81) ▲박재용(72)
▲백오섭(62) ▲서정환(54) ▲송기준(65)
▲송도영(91) ▲안 훈(57) ▲유희만(75)
▲윤대규(55) ▲이범선(51) ▲이우영(63)
▲이정학(87) ▲이진호(88) ▲정영화(60)
▲정태석(68) ▲조명래(74) ▲최윤석(56)
▲황명수(78)

◇藥學大學

▲김규원(76) ▲김만수(99) ▲김영미(83)
▲김정숙(73) ▲김준경(63) ▲마상황(70)
▲박문기(51) ▲박승무(71) ▲신복영(76)
▲신철교(79) ▲염영은(73) ▲옥치완(55)
▲우소동(65) ▲우웅렬(61) ▲윤혜숙(66)
▲이재욱(48) ▲이정희(91) ▲이형규(78)
▲이혜정(93) ▲임채원(71) ▲장봉수(65)
▲전현주(97) ▲정희경(88) ▲조미정(91)
▲조정환(86) ▲조현민(98) ▲최리나(88)
▲최수일(65) ▲황인수(69)

◇音樂大學

▲강정구(69) ▲공정원(96) ▲길일섭(84)
▲김계화(92) ▲김명규(80) ▲김미경(73)
▲김민자(70) ▲김병엽(83) ▲김옥경(81)
▲김원식(56) ▲김인옥(81) ▲김재원(87)
▲김재은(80) ▲김현숙(78) ▲김형순(72)
▲나혜경(81) ▲박세나(94) ▲박은경(81)
▲방영호(84) ▲사공복수(70) ▲서윤진(98)
▲선우난영(78) ▲송영옥(84) ▲신혜정(86)
▲오미혜(75) ▲오양구(69) ▲오진옥(72)
▲원유란(75) ▲유현아(85) ▲윤문숙(84)
▲윤왕로(86) ▲이상룡(66) ▲이수경(88)
▲이승현(91) ▲이승희(83) ▲이오규(79)
▲이옥엽(67) ▲이종길(90) ▲이지연(97)
▲이판준(72) ▲임정민(93) ▲장혜실(73)
▲전상직(86) ▲전혜옥(79) ▲정복주(70)
▲정임민(98) ▲최선용(80) ▲황화자(64)

◇醫科大學

▲강수경(88) ▲강영진(89) ▲강진국(63)
▲고경심(82) ▲구재철(84) ▲김민석(96)
▲김민아(00) ▲김병규(51) ▲김상은(83)
▲김웅흡(79) ▲김종구(84) ▲김종박(65)
▲노경운(85) ▲도영수(83) ▲명호진(58)
▲박영일(50) ▲박이철(43) ▲박인성(85)
▲박인원(83) ▲박중수(76) ▲손봉기(73)
▲송선보(47) ▲신요철(61) ▲신원석(88)
▲안병완(76) ▲안한종(82) ▲엄원호(61)
▲여봉구(83) ▲염명걸(81) ▲오상빈(79)
▲오수정(72) ▲유영해(48) ▲유왕성(81)
▲유윤정(77) ▲윤상남(96) ▲윤여규(75)
▲윤용구(72) ▲이건용(75) ▲이규범(56)
▲이규언(99) ▲이덕수(61) ▲이동규(83)
▲이병훈(66) ▲이수동(75) ▲이언복(58)
▲이용진(76) ▲이필량(83) ▲임현준(63)
▲장명훈(84) ▲장운삼(49) ▲전성환(83)
▲정 민(81) ▲정규철(55) ▲정요한(57)
▲정진우(49) ▲정태산(59) ▲정현채(80)
▲조영기(56) ▲지석산(85) ▲차건원(82)
▲차인식(79) ▲최기용(81) ▲최훈동(79)
▲한기준(58) ▲한정수(77)

◇齒科大學

▲고영식(75) ▲곽현희(74) ▲구본석(84)
▲권지영(98) ▲김경남(83) ▲김두현(64)
▲김명득(65) ▲김병석(85) ▲김시웅(86)
▲김영균(86) ▲김영훈(60) ▲김옥희(83)
▲김유진(83) ▲김정란(89) ▲김정수(89)
▲김정자(65) ▲김종원(73) ▲김종태(76)
▲김진명(77) ▲김진수(84) ▲김택근(63)
▲김현진(60) ▲김희준(78) ▲노은희(89)
▲목길수(79) ▲박경준(83) ▲박상복(79)
▲박희운(84) ▲백위현(73) ▲서운석(78)
▲설창환(73) ▲송채현(81) ▲송현미(85)
▲안홍회(79) ▲양무도(77) ▲양수정(89)
▲엄인웅(84) ▲유동수(56) ▲유지은(58)
▲윤영수(88) ▲윤철민(88) ▲이병규(61)
▲이상헌(87) ▲이인경(88) ▲이종혁(80)
▲이태호(78) ▲이현재(60) ▲이흥상(80)
▲임광수(66) ▲임달수(58) ▲임택재(61)
▲임형우(61) ▲장묘안(90) ▲전국봉(61)
▲정대현(76) ▲정영한(78) ▲조상래(89)
▲조진희(89) ▲진기열(83) ▲차봉익(75)
▲천옥진(86) ▲한 영(85) ▲한광수(78)
▲한금남(89) ▲한수부(67) ▲한원일(91)
▲한태원(76) ▲허만욱(62) ▲현재만(84)
▲현천섭(59) ▲홍성익(61) ▲황영재(83)
▲황치일(83)

◇大學院

▲고진석(01) ▲권덕주(61) ▲김경환(92)
▲김기용(85) ▲김성례(63) ▲김성택(87)
▲김항묵(76) ▲나가르머(82) ▲박병인(88)
▲박재영(72) ▲송기언(75) ▲양희석(86)
▲염시창(91) ▲유미란(93) ▲윤정원(91)
▲이명기(71) ▲이은기(84) ▲이익권(87)
▲장동주(81) ▲최성우(94) ▲최연희(85)
▲한수정(99)

◇經營大學院

▲원진영(90) ▲이효정(94)

◇敎育大學院

▲변정숙(66)

◇保健大學院

▲김봉재(97) ▲김영웅(77) ▲박재용(74)
▲신광훈(73) ▲이승진(93) ▲이용성(73)
▲이준협(86) ▲전태윤(77)

◇司法大學院

▲김차회(69)

◇新聞大學院

▲황우권(72)

◇行政大學院

▲김경섭(75) ▲김광영(81) ▲송태준(78)
▲오윤진(65)

◇環境大學院

▲권용수(76) ▲김대영(76) ▲유철상(79)
▲임용택(90) ▲정병철(85) ▲진영훈(82)

◇최고경영자과정

▲강석진(51) ▲강혜숙(47) ▲곽 진(49)
▲구광시(35) ▲권기정(44) ▲권병좌(32)
▲김경덕(18) ▲김병원(1) ▲김성식(44)
▲김시영(39) ▲김영기(11) ▲김영덕(46)
▲김영수(46) ▲김영활(34) ▲김유산(51)
▲김준언(34) ▲김진섭(9) ▲김철한(3)
▲김헌수(45) ▲김혜삼(51) ▲노기호(50)
▲박순석(38) ▲박치현(15) ▲서 구(41)
▲서석해(40) ▲손언승(51) ▲양철형(47)
▲오동빈(22) ▲오병제(21) ▲우국일(8)
▲유건수(2) ▲윤승혁(48) ▲이경봉(38)
▲이근재(17) ▲이만희(31) ▲이병구(16)
▲이봉훈(40) ▲이석명(12) ▲이소동(6)
▲이수증(26) ▲이승휘(49) ▲이영희(30)
▲이원구(50) ▲이원길(26) ▲이중삼(40)
▲장기홍(8) ▲장기효(50) ▲전태성(28)
▲전현찬(44) ▲정구용(47) ▲정홍기(30)
▲조양호(29) ▲조은상(45) ▲지종우(6)
▲최경희(38) ▲최기원(10) ▲최성택(23)
▲하정우(15) ▲하홍태(11) ▲홍완기(27)
▲황규헌(44)

합 계 : 71,430,000원
총 계 : 239,438,182원

〈지면관계로 최고산업전략과정, 국가정책과정, 고급금융과정, 가정간호수습과정,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회비 납부자는 다음호에 게재〉

동문의 소리

여성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왔다

張永順(88년 看護大卒)분당정보산업고 양호교사

며칠 전 작은 논문 하나를 어렵사리 끝내놓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못다한 의무를 하고 있노라니 오랜 기간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여성들에 대해 경외감이 절로 생겨난다.

필자의 경우야 학문자체가 본업도 아니고 단지 교직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뒤늦게 연수하는 심정으로 교육대학원에 들어간 것이었지만 그도 결코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늦게 하는 공부로 인한 知力의 한계도 있었지만 그보다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가사노동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고단함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이었다. 물론 공부에 새삼 재미를 느끼는 것조차도 경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보통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에 대한 의무, 직장생활, 공부를 동시에 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보잘것없는 연구물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이럴 진데, 학문의 분야를 비롯해 자신의 분야에서 뭔가 많은 것을 일궈낸 사람들 중 특히 여성인 경우는 대부분 같은 업적을 이룬 남성들보다 몇 배의 노력, 몇 배의 고통과 정신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남성들의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아직도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열정에 대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여성자신조차도 인색하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몇 년 전 한 대학선배가 남편의 도시락을 매일 싸주고 아이들을 직접 돌보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보았다. 또 계속 탁아모를 바꿔야 하는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꿋꿋이 학문을 놓지 않는 후배도 가까이서 봐왔다. 필자의 주변에는 교육사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정을 바치는 여교사들도 많다. 이들은 분명 자신을 극복한 보통이상의 의지를 가진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필자처럼 보통의 의지를 가진 여성들도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닌 자신의 적성과 선택에 의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사회적 편견도 개입되지 않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수년간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지만 남성과 여성은 졸업 이후에 마치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20세기에 청년기를 보냈던 우리들의 상황은 그랬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굳이 전문직 관련학과의 여학생 비율이나 여성총리의 탄생을 들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만나는 여고생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도 분명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오리라.

이제 양성이 함께 특별한 의지를 발휘해 21세기를 살아갈 후배들에게 진정한 평등의 세상을 열어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특수절도범과 티켓다방 아가씨

鄭宇喆(93년 環大院卒)도시건축연구소 (주)유디포럼 이사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서 방학준비 땜시 요즘 시간이 없었어요. ^^;; ㅋㅋ 막상 쓸려니까 쓸 말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하나… 움… 어제랑 엊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였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모들이 와서 용돈도 주시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움… 둘째 고모가 오토바이 걸려서 얼마 전에 검찰청 갔다가 온걸 아시고는 저 보고 제발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용돈을 많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ㅋㅋㅋ 저 사실은 여자 친구 있어요. ㅋㅋ 엄마가 옆에 계셔서 차마 말못했던 거에요. ‾_‾;; ㅋㅋㅋ…』

얼마 전에 선도보호 활동요청으로 만났던 고등학교 2학년의 남학생으로부터 보내온 메일의 일부 내용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 반성문을 써서 보내라고 했더니 할말이 별로 없나 봅니다. 이 학생은 가정형편도 좋고 학교성적도 좋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의 속을 썩이는 문제아도 아닙니다. 다만 친구들하고 공원에 놀러 갔다가 길가에 있던 50cc짜리 오토바이를 호기심 때문에(학생에 의하면 「열쇠가 없어도 시동이 걸릴까?」) 50m 정도 탔다가 특수절도범이 된 경우입니다.

지난 7월초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의 공업지역으로 유명한 A시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티켓다방을 단속했는데, 저는 그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속을 시작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불과 몇 개 업소를 들르지도 않았는데 버스에는 이미 미성년자와 그들을 고용한 업주들로 꽉 찼습니다. 충격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밤 수사관들의 조사를 도왔는데, 그 중에 열여섯살의 어린 소녀가 한 말이 너무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자 불화 끝에 어머니와 이혼한 후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두 자매의 학비는 물론 당장 먹고 쓸 수입이 없었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비를 내지 못한다는 창피함 때문에 일주일간 결석을 했는데 담임선생님과 학생과장은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보는 교실과 교무실에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됐으며 지금도 한이라면 출석일수 일주일이 모자라서 중학교 졸업을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장에 취직해서는 야근과 잔업이 계속 있을 때면 한 달에 약 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공장에 일감이 떨어지자 급여도 제대로 나오질 않았고, 식당에 취직해서는 손님들이 계속 술을 마시게 해 술을 못한다고 하자 3주만에 돈도 받질 못하고 쫓겨났답니다. 어린 소녀의 손바닥은 꺼칠꺼칠하고 지문도 없었습니다. 티켓다방 2개월만에 비록 1백50만원의 빚은 졌지만 누구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음만은 편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성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청소년 보호」를 외쳐대도 우리들이 무관심하다면 「특수절도범과 티켓다방 아가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 삶의 향기를 느끼게 하자

趙炳大(6기 APC)한국도로공사 자산관리과장

어느 가족이나 그 구성원의 인간적 면모는 각양각색입니다. 출중하게 뛰어나 자신의 대성은 물론 자기집안과 그 가문 전체를 빛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자기가족이나 보살피면서 소리 없이 평범하게 사는 보통사람들도 있으며, 더러는 선대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사고 치고 벌받고, 부도내어 온 집안을 망하게 해 원성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선대가 후대에 물려준 토양, 토질, 그 토지의 영양분은 그 후대가 살아가는 동안 치명적인 영향을 줘 아무리 노력해도 물려받은 영양분으로 인해 척박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작물의 양과 질은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면 선대가 이름높은 사람이거나 재벌이라면 후대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양을 개량해 양질의 옥토를 만들기 위해 자녀교육과 부의 축적에 평생을 바쳐 노력하고, 남보다 경쟁에 뒤졌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코자 하는 그분은 남에게 배우거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엇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20년대 후반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 6·25사변 그리고 참전 포로생활 후 군제대해 다시 충주에서의 흙과 함께 해온 인생이 전부입니다.

70대 중반의 그분은 아직도 자신의 생활철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해 밤이면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공부를 합니다.

그분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날품팔이 머슴살이 그리고 돈이 좀 모이면 조그만 전답을 사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남과 같이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도, 땅보다 더 나은 투자에 대한 제의도 물리치고 본인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땅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상당한 재산을 모은 재력가는 더욱 아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평생을 살아온 그분에서는 삶의 짙은 향기가 솔솔 나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변하건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면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서 저는 제 자녀에게 어떠한 토양과 영양분을 공급해왔고 토질 개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심어 주었나, 후에 자녀들이 장성하여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 현재의 저의 모습이 너무 작아져 버려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훗날 스스로 인생보고서를 쓸 시기가 오면 나름대로 삶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향기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